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4 11 | 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있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매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법권 101호 2004년 11/12일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목은이 이강선주, 김희정/펴낸날 2004년 11월 5일

여는 글	그 첫 마음으로	주호미	2
보육 정책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이윤경	4
보육활동			
아동교육	생태놀이? 자연놀이?	이현주	20
좋은그림책소개	색깔의 여왕	한혜정	25
그림책을 읽어주고	좋은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 구름놀이 -	이성옥	27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두번째)	고정미	29
어린이와 환경	영유아시설의 통학차량, 필요한가?	이윤경	37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도담도담 아이들의 물(物)과 나눈 이야기	도담도담어린이집	40
보육교사일기	'응가' 냄새와 친해지기.....	임미화	43
육아일기	엄마와 아가 그리고 아빠의 환상적인.....	김수연	47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 - 안미경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류지민	50
힘내라보육교사			
2004 여름수련회 이모저모		편집부	52
지부활동			
경기지부	타는 목마름으로...	김미숙	63
광주전남지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마지막 몸짓?	김영금	64
대구지부	여름수련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유현민	67
부산지부	아이들과 함께한 미술공연(?)	박희순	68
서울지부	서울지부인(?)이 되기까지	이수미	70
울산지부 준비위	울산지부 준비위, 카페 생겼다!	김지희	72
인천지부	인천에서 2004년 각 교육원에서 실시된.....	박은아	73
중앙활동			
	생활속에 실천하는 아동인권 2	서정은	75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걷기대행진 참관기	김지희	80
세상읽기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한다는 것	이경미	82
함께 생각해봅시다	어린이집 행사에 마음 아픈 아이들....	서재림	84
알림란		편집부	87
보육계풍향		편집부	89
소식과 소식		편집부	94

그 첫 마음으로

주 로 미 · 명예회원

밤새 꿈속에서 해마다 일어났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이른 아침의 여명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눈에 보여 주려는 듯이
마치 나의 시간이 관성과 타협의 시간 앞에 늘어져 있듯이 말입니다.
힘겹게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은 당신과의 짧고도 긴 시간 앞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당신에게도 되묻고 싶습니다.

평생가도 대단한 지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남을 부리는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길을 오래도록 지켜온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지탱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점점 더 영리해져 가는 아이들에게
아이들 교육이라면 목숨걸고 뛰어드는 부모들에게
그 틈바구니에서 장사를 해대는 교육현실에 몸서리치면서
당신은 좌절과 힘겨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당신도 나도 알고 있지요.
오직 참사랑만이 이것들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당신은
생명을 위해 걷는 사람입니다.

보육교사를 선택한 당신은
소박한 삶의 진리를 찾아 떠나는 수도자입니다.
어둠이 새벽의 여명을 만들어내듯이
당신만이 이 현실을 빛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오래도록 지켜온 당신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대형매장에 준비해있는 온갖 물건들처럼
현란한 포장으로 상품화되어 버린 교육현실 속에서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지켜내십시오.
그 어떤 권력으로도
그 어떤 유혹으로도
그 어떤 관성과 타협으로도
막을 수 없는 당신만의 길에 발자국을 남기십시오.

가난하고 소외 받은 이 땅의 아이들과 함께 하려했던
그 첫 마음으로 다시 깃발을 당기려는 당신이기에
당신이 외치는 권리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에
그래서 더욱 아름답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이 당신 앞을 훌쩍 지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지나간 그 길을 답사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될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

〈전국보육노동조합 건설 추진위원회 선포식에서 김진숙님이 낭송하신 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이 윤 경 ·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지난 10월 5일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등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하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시설설치 기준에 대하여

- 전반적으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고 특히 안전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시설규모의 상한선 지정 : 또한 전체 보육시설 규모의 상한선(300인 이상 금지)을 정하여 시설의 대형화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300인 이하 규정은 영국의 아동보육법 규에서 정하고 있는 1개시설 규모 50인 이하에 비하면 상당히 대규모 시설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국이 이러한 기준을 택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시설이 교사와 또래아동 간의 상호작용, 안전 등에 더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유치연령이 다니는 유아학교는 예외) 한국은 현재 민간의 경우에는 시설당 평균아동수가 40~50명 규모이고, 국공립(평균아동수 : 78명), 법인(평균아동수 : 86명)의 경우에도 100명이 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보육환경과 질을 위해서는 총 규모가 10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아동1인당 면적 : 시설기준에서 전반적으로 기존보다는 아동1인당 면적이 넓어지는 했지만 아직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보육실 면적을 계산할 때 거실, 유희실, 포복실 면적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제 아동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보육실 전용면적은 기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준을 보육실 전용면적으로 해야 한다.

- 옥외놀이터 설치 기준 : 52인 이상의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인근에 놀이터가 있을 경우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실효성이 우려된다.
- 일반적인 시설설치기준이외에 가정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 장애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은 별도의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통합시설의 경우에는 기준의 의무적용이 아니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물론 소수의 장애아를 통합보육하기 위해 시설을 추가로 개조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개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이상 지나치게 많은 기준은 장애아보육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장애아 통합반은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1층에 보육실을 두도록 하거나 비상사태에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장애아가 생활하기 편한 시설 기준은 다른 영유아들에게도 좋은 기준이 된다.

• 아래 내용은 일부내용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 관련)

1. 시설의 입지조건

- 가. 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함.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각호의 시설(공해공장, 유해물질처리장, 주유소 등)을 말한다.
- 다. 시설 건축물의 용도 등은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국·공립, 직장 및 부모협동 보육시설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은 제외) 및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2. 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의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벽지 등의 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2)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1인당4.29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참고 - 1평은 3.3058㎡/ 4.29㎡는 약 1.3평)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1층에 설치 원칙. 다만, 1층에 공간확보가 곤란한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4층 이상에는 보육실 설치 불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약 0.8평)

③ (생략)

④ 환기·채광·조명·온습도는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기준을 따름.

(나) 조리실

①, ②(생략)

③ 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 동일 건물 내 조리실 사용 가능함.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와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

(라) 화장실

①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세면기 및 변기는 아동 10인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며,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2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 옥외놀이터는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는 제외)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 등도 가능),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옥상에는 설치 불가) 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놀이터는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세부사항 생략)

(바) 급배수시설

①, ②, ③ 생략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②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기타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자동화재 탐지설비, 방송설비 및 비상벨,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의 설치는 소방관계 법령에 의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가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사무실·양호실·수유실 기타 영유아보육법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할 수 있다.

(자) 기타 실내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용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며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 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구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고무나 모서리 보호대 등 장치를 설치한다.

⑤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해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해야 하며, 선반설치시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무거운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안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않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로 하여야 하며, 커튼, 실내장식물, 칸막이용 합판 및 전사용 합판 등 소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한 물품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보육시설 중 가정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 장애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시설은 일반기준 외에 다음의 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정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은 상가건물에 설치할 수 없고,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은 제외)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2) 영아전담시설

영아전담시설은 바닥난방시설, 바닥난방온도조절장치, 냉온수 즉시 조절가능 샤워설비, 개인침구(요, 이불), 영아용 침대(24개월 미만 영아 보육시), 살균소독기 및 공기청정기(또는 공기필균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장애아전담시설

장애의 종류에 따른 해당분야의 의사가 장애아가 아닌 영유아와 통합보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아(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외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 장애아 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 · 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반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 포함)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 · 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마)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도어체크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휠체어에 앉은 아동이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사) 계단 이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아통합시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라)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하여

■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만 3세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영유아보육법 초기 시행 당시의 1대 15명 기준으로 조정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취학아동의 경우에도 1대 30명에서 20명으로 아동수가 줄어든 것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 단계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직까지 그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별도의 보조인력 없이 1명의 보육교사가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더 낮춰야 할 것이다.

종일제 보육서비스에서 영국과 한국의 비교(자료출처- 판단중지(), 상조사,1998년)

	한국	영국
0-2세미만	1세미만 - 1:3	1:3 2세미만 - 1:5
2세아	1:7	1:4
3세이상	3세아 - 1:15	1:8 4-5세아 - 1:20
방과후	1:20	1:8

■ 종사자 배치기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등이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간호사나 영양사를 겸직할 경우 실제 필요한 고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된다.

• 아래 내용은 일부내용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별표 2】

종사자 배치기준(제13조 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와 그 수

가. 시설장 1인.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 (1)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2) 만1세 이상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3) 2세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4) 3세의 아동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5) 4-5세 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아동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중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한다. 이외 필요에 따라 별도의 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다.

다. 간호사

- (1)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1인을 둔다.

라. 영양사

- (1)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영양사 1인을 둔다. 다만 동 일 시·군·구의 보육시설은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및 조리사

- (1)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6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 (2)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취사부 중 1인을 조리사 자격소지자로 채용하여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바. 기타종사자

- (1)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축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관리인·위생원·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등이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예시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1명	보육교사 2명	보육교사 3명	보육교사 4명
1세 미만아	1~3	4~6	7~9	10~12
1세아	1~5	6~10	11~15	16~20
2세아	1~7	8~14	15~21	22~28
3세아	1~15	16~30	31~45	46~60
4~5세아	1~20	21~40(1명은 1급)	41~60	61~80(2명은 1급)
취학아동	1~20	21~40	41~60	61~80
장애아	1~3	4~6	7~9 (1명은 특수교사)	10~12

기타인력 1인당 아동수 예시

구분	1명	2명	3명	비고
간호사	100명 이상	—	—	—
영양사	100명 이상	—	—	5개 이내 시설 공동
취사부	40~60명	61~120명	121~180명	50인 이상 시설의 취사부 중 1인은 조리사 자격 소지자

3. 종사자 복무에 대하여

■ 복무와 관련된 규정에서 8시간 근무를 명시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전혀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운영의 원칙이 마치 12시간 근무원칙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시행규칙에서 8시간 근무로 명시한 것은 이미 있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만 보육교사의 장시간근로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보육교사는 일반적인 직장과는 달리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아동들의 식사지도와 뒷정리 등으로 더 바쁜 시간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추가인력의 배치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든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는데 '계약기간'이라는 말이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주 바뀔 경우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는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계약기간 명시를 오해하여 1년 단기계약을 쓰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보육교사의 안정적 업무수행은 어려워진다. 이 부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정도로 정리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 또 보육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육아경험이 있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는데 이것이 자칫 정규보육교사의 채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 또 시설장과 기관장의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시설장은 자격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장을 해당기업의 사업주나 임직원이 맡을 경우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장(구청장 등)과 종교시설장(목사 등)은 별도의 자격 취득없이 시설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 아래 내용은 일부내용만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별표 2】

종사자 배치기준(제13조 관련)

2. 종사자 임면

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 설치자가 임면한다. 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 종사자 채용시 임금,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바. 국공립시설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선발고사 등으로) 보육교사를 채용 후 배치할 수 있다.

사.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되, 시설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제6호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이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 (1) 행정기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위탁운영시설은 제외한다)
- (2) 학교의 교직원자녀보육을 목적으로 학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3) 사회복지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4)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 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 (5) 종교시설에 부설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6)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시설장,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 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보수교육에 대하여

■ 보수교육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 받는 직무교육과 경력에 따라 승급을 하기 위해 받는 승급교육으로 나뉘어진다. 승급교육은 일정한 자격을 위해 수행되는 교육이기에 별도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직무교육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방식과 커리큘럼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교과목을 모두 지정하기보다는 일정시간은 자유롭게 본인의 관심과 필요에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2】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3조 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가. 직무교육

직무교육이라 함은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가 최초 자격 취득 또는 승급 후 매 3년마다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1) 일반직무교육

- (가)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 매 만2년마다
- (나) 보육시설의 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시설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와 보육업무 경력 매 만2년마다.

(2) 특별직무교육

- (가) 영아보육 직무교육:
- (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다) 방과후보육 직무교육과정:

※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승급교육

승급교육이라 함은 보육교사가 승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의미한다. 단,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다만 영 제28조의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2. 교육시간

가. 직무교육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승급교육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방법

가. 보수교육은 여성부장관이 위탁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 시기 예

구분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7년차
시설장	신규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1급 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1급 보육 교사	대학 졸업자		승급교육 (직무교육)	1급승급	—	—	—
	대학원 졸업자	승급 교육	1급승급 (직무교육)	—	—	—	—
3급 보육교사		승급 교육	2급승급 (직무교육)	—	승급교육	1급승급	—

주 : ()는 승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는 시설장으로 채용된 경우는 시설장 신규 직무교육을 받는다.

5. 종사자 자격기준에 대하여

■ 시설장 자격중 6,7의 경우 축탁의사처럼 시설에 상근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거나 영아전담시설장에서 간호사자격으로 아동복지업무나 보육업무가 아닌 간호업무경력만으로 자격을 부여할 경우 전문성에 있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특히 8번처럼 공무원이 보육행정업무 경력만을 가지고 시설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육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별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8조 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보육시설	1.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았거나 무설로 운영하는 경우, 그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소속된 보육관련 교과목의 전임교수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아동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영아전담 보육시설	1. 일반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1~8항에 해당하는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비고 : 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라 함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② 영아전담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③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등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5.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중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7.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8. 위의 1~7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의사(또는 촉탁의사)나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 6~7호 해당자)
9.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8호 해당자)

④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대학원 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비고 : ① 외국에서 보육교사 2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생태놀이? 자연놀이?

이 현 주 · 인천지부 회원

생태놀이? 자연놀이?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

처음에는 생태 교육이라 했는데 날이 갈수록 과연 생태교육이 무엇인지!

만3세 아이들과 매일 나가는 공원에서 생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하는지 많은 자료, 참고서적, 계획만 거창했다.

날이 따뜻해지고 바깥놀이 횟수와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지식 전달의 계획과 자료는 중요하지 않았다. 공원에 있는 풀과 나무, 곤충들이 우리에게 함께 놀자고 손짓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 가는 것 같다. 그렇게 거의 매일 공원에 나가면서 1, 2개월의 영아들이 매일 변하는 것처럼 공원의 작은 식물에서 키 큰 나무들까지 매일매일 자라고 변하는 것을 아이들은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안다. 그래서 나의 반 아이들은 매일 공원에 가요----- 하며 나를 조른다. 우리들은 비 오면 우산 쓰고, 해가 나면 모자 쓰고 매일 공원으로 가고 아이들은 놀이터보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공원에서 놀기를 더 좋아한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교육이기보다는 그냥 생활이것 같다.

아이들과 공원에서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보여드릴게요~

활동일지

일시	2004년 4월 12일	날씨	맑음 조금 더웠다	장소	중학교 뒷문 앞 공원
시간	내 용				
11시~12시 0시간	벚꽃이 많이 피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면서 공원안으로 달려 들어간다. 중간쯤에 여러 개의 의자가 있는 쉼터 옆에 모여 노는데 바람이 불 때 마다 바람을 타고 꽃잎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눈오는 날의 강아지처럼 꽃잎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미리 교사가 공원을 둘러보고 가면 더 재미있다.				
평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꽃잎이 떨어지면서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엉켜 넘어져 다치기가 쉽다. (미리미리 조심)				

활동일지

일시	2004년 4월 19일	날씨	맑음 더웠다	장소	새빛 교회앞
시간	내 용				
11시~12시 (1시간)	나 : 어! 여기 제비꽃 있다. 아이들 : 어디! 나도 볼 꺼야. 마구 밀며 달려들어 구경을 한다. 나 : 애는 이름이 두 개래. 아이들 : 왜-요. 나 : 오랑캐꽃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간 후 봄부터 길가에 피기 시작해서 오랑캐꽃이라고 한데, (이동하면서 꽃 모양이 같은 것 색이 같은 꽃을 찾았다.) 하천을 따라 공원을 한바퀴 도는데 팔배나무 아래서 열매를 보는 순간 사과다—— 하며 모두 쪼그리고 앉아 열매를 양손에 가득 잡는다.  걸어가면서 어린이집 앞 공원에서보다 크고 빠른 개미가 지나가자 그 자리에 앉아 친구들이 모두 지나가고 불려도 잠착을 읽는다. 				
평 가	여러 가지를 보다보니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어서어서 가자고 재촉을 많이 했다. 동선을 짧게 작은 공간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활동일지

일시	2004년 5월 6일	날씨	겉옷이 필요없음	장소	명월놀이터
시간	내 용				
11시~12시 (1시간)	나뭇잎들이 무성해졌다 시원한 그늘도 넓어지고 놀이터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함께 주웠다.  한 참을 치운 후 놀이기구도 타고, 풀밭으로 가 다른 꽃도 찾았다. 아이들 : 꽃벌——, 꽃벌——. 나 : 왜! 아이들 : 여기 좀 와봐요. 이게 뭐예요. 작은 야생초들만 보다 공원 조경수에 핀 꽃을 신기해했다. 민들레 씨앗도   꽃들이 많이 피면서 나비들도 많아 날아다닌다. 아이들이 나비만 보면 양팔을 들고 '나비나비 날아든다 팔랑팔랑 춤을춘다'를 연신 하며 공원을 뛰어간다.				
평 가	쓰레기를 치운 생각은 못 했는데 다 치우고 깨끗해진 공원을 보니 아이들도 좋아했다. 공원 놀이터를 깨끗이 사용해야 공원의 동식물도 잘 자랄 수 있으니까.				

활동일지

일시	2004년 5월 14일	날씨	햇볕이 뜨거움	장소	중학교 뒷문 앞 공원
시간	내 용				
11시~12시 (1시간)	그동안 보았던 꽃과 다르게 보라색 꽃들이 많이 피었다. 이제는 공원에 오면 오늘은 무엇이 새롭게 생겼나 찾아본다. 여기저기 공원 가득 핀 클로버 꽃으로 꽃목걸이도 만들고, 화관도 만들었다. 만 들어 달라고, 서로 만들겠다고 꽃밭에 앉아 함께 만들기 연습도 했다.				
	  비 온 후 얼마 안 돼 공원에는 물웅덩이도 생기고 땅도 질척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주위 질척한 땅을 걸기도 하고 놀더니 그 위를 뛰어다니 운 동화도 짓고 진흙에 미끄러져 넘어져도 신나게 웃고 놀았다. 손으로 만져보고 발끝으로 진흙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평가	공원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공원에 나가 조금은 지저분한 곳에서 놀게 되 었는데 다음에는 진흙을 경험 할 수 있게 미리 확인하고 공원에 나가야겠다. 놀이 후 손 발을 깨끗하게 닦기.				



색깔의 여왕

한혜정
부산지부회원

유타 바우어 글·그림
조영주 옮김 / 문학동네



저는 아주 활발하게 태동을 하고 있는 만 7개월의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예비 엄마랍니다. 5개월부터 제 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차태를 하고 있었으니 지금은 모두 만삭인 줄 알지요. 그래선지 임신 전엔 서점에 가끔 들러 책 구경도 했더랬는데 임신한 뒤로는 돌아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글을 핑계로 오랜만에 책방 나들이를 하게 되었네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었어요.

위낙 책들이 많은 탓에 고르기가 쉽지 않더군요. 이책 저책을 골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니 무거운 몸으로 허리와 다리는 벌써 신호를 보내옵니다. 나중에 보니 다리랑 발이 탕탕해졌더군요.

그러다, 손에 잡힌 책이 색깔의 여왕이었어요. 책에 색칠된 것이 꼭 아이들 난화 같은 느낌이어서 누가 낙서를 해놓았나 싶어 손으로 만져보기만 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덮고 나왔지요.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는데 결국 오후에 쉬는 신랑을 앞세워 서점나들이를 또, 갔답니다. 도착하자마자 색깔의 여왕부터 먼저 찾았지요. 웬지 보고 싶어지더군요. 이번엔 천천히 보았답니다. 한 장 한장을 넘기면서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림도 아이들이 색칠해 놓은 것 같구요. 단순한 그림에 세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슬픔, 따뜻함, 경쾌함.....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색칠된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더군요. 작은 아이들은 "이거 내꺼" "저거 내꺼" 하며 보이는 색깔을 자기것으로 만들기에 바빴어요. 이책은 영아들이 보기보다 유아에게 더 맞는 책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더 이 책을 꺼고 다니더군요. 아마도 그건 책크기가 작아서 작은 손에 질 수 있고 옆구리에 끼기도 적당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책을 볼 때면 영아들도 어느새 형들을 밀치고 선생님 앞으로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열심히 그림에, 색깔에 눈을 맞추답니다. 그러다, 색깔여왕의 말을 따라 '과랑~' 하고 부르면 잘안되는 발음이지만 '마망~' 하고 따라 해보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뒤편의 색깔축제 부분입니다. '이 축제', '저 축제', '이런저런 축제' 라고 하면서 재밌어 하더군요. 마지막 색깔여왕이 잠들어 과랑이 포근히 덮어주는 부분은 떠들썩하던 축제가 정리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고 돌아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이들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여왕이 과랑, 빨강, 노랑의 신하들과 싸우고 서로 상처주고 다시 화해하며 벌이는 축제의 모습들에서 서로 잘 놀다가도 싸우고 엉키고 물고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며 금새 까르르 웃고 장난치는 아이들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책을 보며 자기 모습을 보는 지도 모르겠군요.

자, 이제 여러분을 색깔 여왕의 축제에 초대합니다.



좋은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 구름놀이 -

이상옥 · 서울지부 회원

우리 구름놀이 또 할까?

아니-요-~

우리반 아이들은 이 책의 맨 뒷장에 나오는 말에 대해 꼭 이런 말로 화답을 한다.

그리고는 저희들끼리 재미있어하며 키득거린다.

처음 구름놀이 책을 보았을 때 그것은 경이로움 비슷한 감동을 주었다.

색감이라던가- 내용이라던가-

그림의 단순함이 주는 상상력이라던가-

내가 이 책을 보여줄 때면 늘 할말이 많아 시끄러운 우리 반 아이들이 집중력있게 물 입하여 선생님의 말과 그림책에 귀를 기울인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반에 평소에 무척이나 말이 많고 제멋대로인 OO이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열기만 하면 바로 조용해지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준다.

그 아이의 기억력 또한 비상하여 몇 번만에 그림책의 내용을 암기하여 버렸다.

OO이는 아주 또렷한 말로 말한다.

이상옥 선생님! 나 그거 읽을 줄 알아요-

OO이는 아이들 앞에 나와서 내가 책장을 한 장씩 열어주면 아주 신명나는 목소리로 크게 글을 읽는다. 그리고는 그림책에 나오는 손모양을 열심히 따라하느라 바쁘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역시 바쁘게 그림책에 나오는 손 모양을 따라 하느라 바쁘다.

마침 하늘이 높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어서 우리 반 교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 역시 그

림책에 있는 하늘만큼이나 파랗다.
아쉬운 것은 구름이 저편에 숨었다는 것....

어린이집 뒤편에 바로 백사실이라는 산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복 받은 아이들이다.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과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마당바위가 많고 멋스러운 계곡이 있어
늘 물가엔 물이 마르지 않는다.

유난히 하늘이 파란 날에 아이들과 백사실에 산책을 가서 야외에서 하늘을 배경삼아 이
그림책을 또 보여주었다.

자연을 벗 삼으니 훨씬 실감이 나는 모양이다.

하늘에 구름만 있었다면 우리아이들은 훨씬 구름놀이를 하기가 좋았을텐데...

이 책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안에서의 상상력은 얼마나 무한한지.

바로 이 우주가 커다란 화실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련되지 못하지만 표현하는 감정 역시 문학이다.

어떤 날의 하늘은 젓빛이고 또 어떤 날의 하늘은 아주 파란색이다.

가만히 보면 어떤 날에는 하늘이 하얗다.

그렇기만 한가! 까맣기까지도 하다.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없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찾은 것은 바로 내 안의 여유다.

넓은 하늘과 구름이 이야기 하는 것들...

그리고 앙증맞은 두 손이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 아이들의 두 손과 여지껏 보지 못하였던 하늘과 구름에 대한 새로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조용한 눈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하늘과 구름을 본다.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두번째-

고 정 미

인천지부 회원 / 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깨비' 연구원 / 유아국악강사

지난 호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었나 모르겠네요. 알 수가 있어야지요. 찹찹.....
지난 호에 실렸던 놀이들의 노래를 녹음한다고 해놓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
이 되면 녹음기를 쓸 수가 없었고, 녹음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더군요. 조만간 꼭 노래녹음을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지난 호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 후
에 계속해서 이번 호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 지난 호에 빠진 〈두꺼비집짓자〉의 내용을 이번 호에 실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찹찹해지는 날씨 탓에 밖에 나가서 놀기에는 좀 추운 것 같고, 안에서
몸을 움직이며 놀 수 있는 내용들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봄아 바라봄아

빨갭게 익은 대추가 너무나 달고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대추 한 알씩을 먹으면서 선생님의 짧은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 어떤 아가가 대추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대추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 아가가 먹으려고 주웠거든.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데 글
세 지나가는 총각이 빼앗아 버리는 거야, 아가가 어떻게 했겠니?"

"울었어요!"

"어떻게?"

"앙~"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지라

아가 아가 주워라

총각총각 뻗어라

아가야 울어라 ("앙~")

5살 정도 되면 한발 뛰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선생님 나 한발 뛰기 잘한다고요!"

만세를 부르며 한쪽 발을 구부리고 뛰면서 팔을 흔들면서 위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가야 울어라!' 하면 다같이 "앙" 하고 울면서 소리쳐봅니다.

6-7살 되면 4-5명씩 짝을 이뤄서 바람개비의 느낌으로 몸을 돌리고, 한쪽 발을 구부렸던 느낌 그대로 발을 구부려서 한 명씩 한 명씩 뛰어갑니다(같은 방향의 발이어야 합니다). 4명이 엮으면 사각형이 되고 5명이 엮으면 오각형이 됩니다. 그렇게 다리를 엮은 상태에서 위의 노래를 부르며 뛰어봅니다. 선생님들 몇 명이 먼저 시범을 보이면 이해가 훨씬 빨라지겠죠!

같은 놀이로, 노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위라 더위라 덥대장 /

추위라 추위라 춥대장

노래를 메기고 받으며 손뼉을 치면서 놀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혹, 다리를 엮는 모양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두 명이 손을 엮어서 가마를 만든 모양을 떠올려보면 됩니다. 옆에 있는 팔에 다른 손을 엮는 방법으로, 내 발을 옆에 있는 다리 위에 엮는 방법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세요. 다음 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을 바깥으로 향하고 다리를 편안하게 구부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놀아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다리

"옛날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고, 날마다 적적하신 거야. 그래 이제 어찌 어찌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는데, 이게 꼭 자식새끼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 힘은 들지만 외로울 때 말동무도 하고, 또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아 식구도 늘고 하니 재미가 솔솔하거든. 그러다가 글썽 송아지가 너무 많아져서 할머니 혼자서는 키우기가 힘들신 거야. 그 때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던 어떤 총각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 새끼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 자기가 그 소들을 함께 보살피겠다는 거야. 그래 이제 할머니를 도와 총각도 함께 그 송아지와 소들을 키웠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아 갑자기 총각이 이제는 할머니 곁을 떠나야겠으니 소 한 마리를 달라는 거야. 그동안 일해준 대가로 말이야.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 된다면 그 말도 말이지만, 다 내 자식 같은 것들인데, 어떤 송아지를 주난 말이야. 그래 할머니가 뭐라 했겠니. 맞아, 안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총각이....."

술 래: 저 달 뵈나.

할머니: 난도 뵈다!

술 래: 저 해 뵈나.

할머니: 난도 뵈다!

술 래: 저 별 뵈나.

할머니: 난도 뵈다!

.....

술 래: 할마이 할마이 저기 저 예쁜 송아지 한 마리만 주~게!

할머니: 내 사 못 줘!

술 래: 그럼 내가 잠으러 간다! 후이~

술래는 이야기 속의 '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총각이 저 쪽을 가리키며 '저 달 뵈나.' 하니까 할머니가 그쪽 방향을 바라봅니다. 이 때 총각이 살금살금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가서 한 마리 가져가려고

하다가 들키고 하다가 들키고 하니까 '할마이 할마이~' 하면서 좋게 한번 더 이야기에 보는 것입니다.

할머니 뒤로 아이들이 앞사람의 허리(또는 어깨)를 붙잡고 서있고, 술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혼자 서있습니다.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디디면서(모두가 춤을 추는 것이다. 이것은 할머니와 총각의 좋았던 시절을 나타내기도 한다.) 술래와 할머니가 말을 메기고 받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후에 송아지를 잡아가려 했지만 실패하고, 한번 더 좋게 이야기했다가 또 실패하자, 술래가 직접 잡으러 간다며 할머니 뒤에 붙어있던 맨 뒤의 송아지를 잡으러 갑니다. '남의 꼬리잡기' 놀이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놀이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선생님이 술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래와 할머니가 메기고 받는 부분은 '자진모리1장단'을 이룹니다.

위의 '송아지따기' 놀이를 다른 방법으로 놀아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딸아이(송아지따기) 놀이를 알고 있었음)와 길을 가다가 위의 메기고 받는 소리를 하면서 "내사 못 쥐!" 하면서 술술 손을 놓으며, "그럼 내가 잡으러간다~" 하면서 딸아이를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꼭 꼬리잡기놀이 형식이 아니더라도, 술래잡기놀이 형식의 놀이로 확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죽마놀이

말탄사람 꺼먹 / 소탄사람 꺼먹

말타사람 꺼먹 / 소탄사람 꺼먹

아이(영아)의 하체발달을 위한 '아이어르는 소리'입니다.

어른의 등에 엮드리고 앉아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디디는 행동에 균형감각이 발달하게 되고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감각 및 동작훈련인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 크게 되면 어른의 등에 올라타고 앉아 말 타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나무막대기나 신문지 막대기를 타고 죽마놀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 혼자 타고 놀아볼 수도 있고, 친구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앉아 놀아볼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에 타고 앉아 두발을 함께 뛰며 위의 노래를 부르며 노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줄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옆줄로 길게 선 다음(한 명씩 하다가 점점 많은 수의 아이들이 놀아 본다) "하나 둘 셋!" 하면서 땅에 댄 막대기를 아이들이 서있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발을 위로 들면서 막대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서있는 모든 아이들이 호흡을 맞춰야 막대기를 밟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때보다 여럿이서 하게 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몇 번 하게 되면 땀도 나고, 호흡을 딱딱 맞춰서 노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놀게 됩니다.

다리뿔기 놀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아이들 옛 놀이'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거리저거리각거리 천사만사다만사 조리김치장독간 총채비파리 딱!
 2. 고모네집에 갔더니 암탉수탉잡아서 (기름동동뜨는데 나한그릇안주고) 지내끼리 먹더라 우리집에 와봐라 수수팔떡해서 주나봐라!
 3. 쥐야 쥐야 어디에서 잤니? (부엌)에서 잤다!
뭘 베고 잤니? (젓가락)베고 잤다!
뭘 덮고 잤니? (행주)덮고 잤다!
누가 깨물었니? (고양이)가 깨물었다!
무슨 피가 났니? (빨간 피)가 났다!
- 1번의 경우,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다리세기놀이는 무수히 많습니다.

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경우는 민요의 특징중의 하나인 예기고 받는 형식이 아이들의 놀이 속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는 재미가 있고, 익숙해지면 묻는 내용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 대신에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도 재미있습니다.

다리세기놀이의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노래의 끝에 걸린 다리를 하나씩 빼다가 마지막에 남은 다리의 주인이 술래가 되는 방법.

노래한번에 걸린 다리의 주인이 술래가 되는 방법... 동동 지역마다 또는 놀이를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놀이를 진행할 때 앞 대장을 뽑거나 팀을 나누거나 .. 동동 본래의 놀이의 목적 외에 다른 놀이의 진행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영아의 경우는, 위의 예들처럼 특별한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냥 다리를 뻗고 앉아서 다리를 쥘으며 노래를 부르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강하게 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면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두꺼비집 짓자

노래가사는 지난 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라는 내용도 있지요. 왼손(오른손) 위에 모래를 얹으면서 오른손(왼손)으로 단단하게 두드리며 위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일 멋진 두꺼비집이 탄생되기를 기원하는 바램으로 말입니다. 일체 장단('쟁쟁' 놀이를 생각하세요)으로 쉼 없이 두드리야 합니다. 그래야 두꺼비집을 만들면서 두드리는 동작과 노래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작년인가 어린이날 특집으로 '전래동요'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이 아이와 두꺼비집을 만드는 장면 이었는데, 두드렸다가 쉬었다가를 반복하더라구요, 아이들은 절대로 두드리면서 쉬지 않습니다.)

다 두드렸으면 이 두꺼비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왼손(오른손)을 살살 땁니다. 손가락 끝을 구부려서 좀 더 깊은 두꺼비집을 만들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절대로 '확' 하고 쉽게 빼지 않습니다. 빼다가 모래에 금이 가면서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두드리게 됩니다.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쁘게 다듬게 되죠. 문 옆을 나뭇잎 등으로 꾸며주기도 하고, 다른 친구의 두꺼비집과 연결하는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신발은 자동차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비가 온 다음날에는 더욱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두꺼비집' 이라고 했을까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금두꺼비...'

우리 모두 두꺼비에 관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지난 호에 글을 써주셨던 인천 생협 예술 어린이집의 강나라(꼬꼬)선생님께서 또 글을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하시며 걱정이 많으시길래, 강나라 선생님의 이번 호의 글에 도움이 되는 '놀이'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아의 하체발달을 위한 '아이어는소리' 중에 '동기야'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동기동기동기야 두동기 동기동 동기야" 하다가 가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타령장단을 입장단 하시면서 놀아주시면 좋습니다. 동작은 똑같이 '아이의 겨드랑이를 잡고 방바닥에 다리를 디디면서', "딩 다끼 덩 딱! 얼쑤!" 하시면 됩니다.

강 나라 선생님의 글의 내용처럼 아이들이 천을 들고 춤을 추고 있을 때, 위의 타령장단을 입장단 해주게 되면 아이들의 놀이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물론 타령장단만은 아니죠)

우리놀이

전래놀이 시간에 한삼 놀이를 하였다.
한삼을 양쪽 손에 끼고 빠지지않게 꼭 쥔다.
여기저기 흔들어본다. (탐색·서로 얼굴도 보고.. 따라해보고..)
장단에 맞춰 흔들어본다.
드디어 시작이다!!
흥에 겨운 이 시간들---

탈춤이란 건 본 적도 없는 아이들...
전래놀이 선생님의 지시로 이 동작 저동작 따라해본다.
앉았다 일어났다, 깡충깡충 뛰면서 흔들어 보다가 자기들끼리 동작을 만들어본다.
탈을 쓴 아이처럼 탈춤을 보고 따라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흰 한삼이 날릴때마다 그 모습이 좋은지 아이들 마음도 같이 날아간다.
며칠 후...
영아 반 교실로 내려간 아이들이 스카프를 발견!!
"올다구나!!" 빨강, 파랑, 초록 스카프를 여기저기 매보더니, 둘러보더니..
스카프를 휘날린다.
커다란 거울앞에서 스카프를 양손에 쥐고, 리본테일을 흔들듯이 흔들어보고, 꾸그리고
앉아 한 쪽 팔은 어깨에 대고 한쪽 팔은 땅에 끌리듯이 움칠움칠 움직여본다.
신난다! 재미난다!!
들쭉들쭉 스카프는 한삼이 되고, 영아 동생들은 관중이 된다..
"뿔산 늑은 호랑이 살쥔 암캐를 물어다놓고.."
"이빨이 없어 먹지를 못하고..." 노래를 부르며, 전래놀이 시간들을 떠올리며 울렸다
내렸다 한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이란 자율감이란..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자기들끼리 원하는 놀이감을 찾아 무엇을 연상케하면 또 그것을 찾아 할 줄 아는 아이
들이 진정한 놀이를 아는 아이들이 아닌가 싶다.
하고싶은대로 원하는대로 우리 아이들을 놀려주세요!! ^^*

어린이와 환경

영유아시설의 통학차량, 필요한가?

이 윤 경 ·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지난 9월 15일 프레스 센타에서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주최한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학차량 실태와 문제점 등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학차량기준 강화, 안전장비착용 의무화, 동승교사에 대한 교육실시, 운영기준강화, 위반시 벌금제도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육시설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조사한 어린이집 320개소 중 전체의 89.8%에 해당하는 265개소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세미만 영아가 이용한다'가 185곳(70.9%)에 이르렀다. 이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당일 토론회는 주로 어떻게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영유아시설에서의 통학차량 운행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참석하였던 청와대 관련위원회 담당자의 경우 통학차량과 관련된 논의에서 차량운행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를 처음 보았다고 의아해 했다. 시설간 경쟁으로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원아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거기에는 통학차량을 타고 다녀야 하는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말 영유아시설에서 통학차량이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럴 경우 영유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아래 원고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토론원고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라는 제목은 통학버스의 운영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태우고 골목을 누비는 노란 버스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통학버스 운영을 기정사실화 할 필요가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어린이집에서, 놀이방에서 차량으로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고 요즘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원아모집조차 되기 어렵다고 한

다. 처음에는 6~7세 유아들이 차량을 이용하더니 요즘은 점점 연령대가 낮아져서 혼자 앉아 있기 힘든 영아들까지 차량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유아기관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가? 일단 차량을 이용한 통학이 필요한 경우는 시설과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놓여온 보육시설에 대해 차량운행비를 지원한 것은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걸어서 10~15분 거리인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모두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집의 차량운행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4년 보육사업지침에서는 현실로 존재하는 통학차량을 인정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 점검 내용은

- 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받았는지 여부
- ② 운영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했는지 여부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가 차내에 상시 준비되고 있는지 여부
- ③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 ④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있는지 여부
- ⑤ 보호자 부재 시 아동을 하차시켜서는 안되며 시설로 복귀시켜 보호하는 지 여부
- ⑥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차량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아동의 안전만을 고려한 것이다. 신체적 유연성이나 자기보호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지도 교사가 탑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에서 한 명의 보육교사가 여러 명의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차량운행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는 길은 그 날의 활동에 대한 기대로 걷는 한걸음, 한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 아침 시간이 바쁘고 서둘러 출근을 해야 되는 많은 부모들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그 짧은 시간조차 잃어버린다면 하루 중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사실 많은 부모들이 걸어서 10분이면 될 거리를 15분을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이를 차에 태워 보내고 있다. 이건 무언가 이상하다.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 짧은 시간의 행복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이리저리 구부러진 골목길을 지나 어린이집에 도착한다.

또 차량에 아이를 태워 보내면 시설과 부모와의 일상적인 면담이나 아동에 대한 정보의 교환 등 의사소통 역시 제한된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사고라도 나지 않으면 아이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부모가 몇 달 동안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어린이집이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 아니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면 부모와 보육교사의 일상적인 만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량운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 하나 통학차량의 운영은 차량에 동승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업무의 증가를 가져오고 한 사람이 차량운행으로 빠지는 경우 시설에서도 인원의 공백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악화와 아이들의 보육환경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통학차량을 둘러싼 문제는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다.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부모와 시설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관의 문제이다.

또 현실적으로 통학차량이 없어지려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믿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또 부모들이 종종거리고 출퇴근 하지 않아도 될 적절한 근무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통학차량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학버스 이용하는 유아들의 위험행동

위험행동	빈도(%)				
	매우자주	자주	보통	별로	전혀
창문 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미는 행동	1 (0.4)	24 (9.6)	75 (30.1)	89 (35.7)	60 (24.1)
하차한 유아가 차량 앞으로 달려 오는 행동		10 (4.1)	28 (11.6)	113 (46.7)	91 (37.6)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달려 나오는 행동	1 (0.4)	7 (3.0)	38 (16.2)	89 (37.9)	100 (42.6)
좌석에서 일어나 장난치는 행동	16 (6.3)	55 (21.7)	94 (37.0)	64 (25.2)	25 (9.8)
승차 시 차례를 지키지 않고 타려는 행동	9 (3.7)	31 (12.7)	65 (26.5)	79 (32.2)	61 (24.9)
정해진 승하차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동	2 (0.8)	23 (9.4)	55 (22.5)	89 (36.5)	75 (30.7)
하차 시 출입문에서 뛰어내리는 행동		14 (5.7)	30 (12.3)	97 (39.8)	103 (42.2)
운전 중에 운전자의 눈을 가리는 행동			3 (1.2)	18 (7.4)	221 (91.3)
갑자기 소리를 질러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행동	2 (0.8)	2 (0.8)	21 (8.6)	86 (35.4)	132 (54.3)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자료집/ 2004/ 한국생활안전연합



도담도담 아이들의 물(物)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딸, 아들을 통해 사~알짜 옛본 보육교사 그녀들의 삶(?)의 단편들...

도담도담어린이집(영아전담시설)

모종(?)의 대화

봄에 작은 땅의 흙과 돌을 골라내고 밭을 갈았다.

3,4세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씨앗을 심은 날의 점심시간.

선생님 : 애들아! 오늘 씨앗 심었지요?

씨앗 친구들은 뭘 할까?

채연 : 선생님! 씨앗 친구들도 도담에 오라 할까요?

다음날 텃밭에서 나오면서도 씨앗과 모종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채연 : 씨앗 친구들아! 잘 자고 있어. 내일 또 올게.

별이가 아니고요!!!

공동놀이실.

아이들이 쿠션 적목에서 뛰어내리기 놀이를 하다가

남자친구 하나가 '쿵' 하고 조금 세게 머리를 부딪쳤다.

선생님 : 태평아! 많이 아프지?

(문질러주면서) 아이고 별도 몇 개 보였겠네

금화 : (선생님 어깨를 두드리며 심각하게) 선생님!

별이가 아니고요. 바닥이(방바닥을 가리키며)가 그랬어요.

선생님 : (우리 어린이집에 별이라는 아명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이놈이 벌써!!!

며칠 전 뽀뽀이반의 아이 엄마가 마스크 팩이 너~무 좋다고 하며 2개를 주셨다.

저녁에 저녁 먹고 세수하고 한가하여(방학이라...)

마스크 팩이 생각나서 얼굴에 바르고 누워 있었다

동건 : 엄마! 이게 뭐야?

엄마 : 오웅, 이건 얼굴을 예쁘게 하는 마사지야

동건 : (냄새를 맡아 보더니) 아~ 조오타

다음에 내 여자한테도 이거 사줘야지!!

자기 아니여!!!

집에 돌아와 목욕탕에서 세수를 하다 남편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다.

엄마 : 자기야 ~ 좀 도와줘!!!

강이 : 자기 아니여! 아빠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엄마 : 당신은 누구십니까?

의연이 : 나는 의연이

엄마 :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할아버지는? 정창면

할머니는? 윤석금

엄마는? 천미애

아빠는? 병원씨~ (엄마가 이렇게 부른대요 ㅠㅠ)

우리 오뎅 타자 !!!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어느 모녀의 황당한 대화

세은 : 엄마, 우리 버스 타고 가?

엄마 : 응..

세은 : 그렇구나.. (진지하게 설명조로) 그럼, 우리 오뎅 타고 가자-

엄마 : 응? 오뎅? 오뎅을 왜 타?

세은 : (반색을 하며)오뎅 타야지.. 우리가 맨날 타는 거 그 버스... 오-뎅-

엄마 : (황당해서) 오뎅? 오뎅? 아... 오 - 뎅 -, 그거 말해?

세은 : (언제 그랬냐는 듯) 응 그거 오뎅...

(참고로 여기서의 "5-뎅"은 버스 555번의 은어(?)입니다)

“아토피 어린이 44%가 다른 질환 동반”

2004/9/20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다른 질환에도 쉽게 걸리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전문 한방병원인 한소아한의원은 올 상반기 전국 24개 지점에서 아토피 치료를 받은 1만6천8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4.1%에 달하는 7천424명의 아이들이 아토피 증상과 함께 다른 질환을 동반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반한 질환별로는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이 1천184명(1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욕부진 988명(13.3%), 성장부진 708명(9.5%), 잦은 감기 532명(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증상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1만6천 730명의 아이들 가운데 체중이 또래 평균보다 적은 경우가 54.9%, 키가 작은 경우가 53.9%에 달했다.

연령별 아토피 아동 분포도를 보면 이유식과 유아식을 시작하는 첫돌~두돌 사이인 0~11개월(30.6%)과 12~23개월(18.6%)이 전체 아토피 어린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4~35개월 13%, 36~47개월 11.1% 등으로 집계됐다.

서초함소아한의원의 이석원 원장은 “아토피성 피부염은 다른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토피는 무엇보다 조기에 치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응가’ 냄새와 친해지기.....

(현장연구 모임 일기중에서~)

임 미 화 · 경기지부 회원

현장 연구 모임을 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쓸 때보다 안 쓸 때가 더 많지만 앞으로 열심히 써 보려고 합니다... 왓싸~ 화이팅!!

‘애기똥풀반’ 막둥이 우탄이와의 일기를 이야기 하려 합니다.*~* 오랑우탄과 비슷하게 생겨 우탄이 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귀염둥이 이야기 재미있게 읽어주세요..(게스트로 26개월 마똥이도 출연합니다!)

8월 30일

공원에 나왔다..

나는 햇볕을 피해 쪼그리고 앉아있다— 26개월 마똥이와 16개월 우탄이를 쳐다본다..

그때 뚜뚜뚜뚜— 나의 레이더에 흥건히 젖은 마똥이 바지가 포착된다.

π.π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며 자주 우유통을 들고 대주면 괜찮은데...)

옷을 갈아 입어야 하니 이거야 원... 큰일이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녀석이 자꾸만 오줌, 똥을 바지에 싸다. 내 얼굴은 더 썩그러 진다...

“마똥아- ‘쉬’ 라고 얘기 해야쥐—” 이 한마디가 자꾸만 입 밖으로 나온다..

8월 31일

응가—와의 전쟁이다...

16개월 우탄이는 오늘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3번이나 응가를 해서 나를 냄새에 기절하게 한다. 손에서 자꾸만 응가 냄새가 난다-

우탄이가 잠잠해지면 26개월 마똥이다.

어른 응가 만한 똥을 바지에 싸면 바닥에 떨어진다..

(어머님께 팬티를 넉넉히 보내 달라고 해도 그때뿐이니... 난감하다!!)

변을 시원하게 보는것에 대해 기뻐(?)해 줘야 하는데

난 오늘도 "우탄아! 제발 이제 그만해~"하며 표정이 어두워 지는 것을 느낀다...ㅠ.ㅠ

그와중에 우리반 준수 민재는 뭐 때문인지 티격태격 때리며 싸웠다..

오전활동을 위해 애기반에 모두 모여 앉았다.. 그리고 일장 연설(???)을 했다..

기분을 다시 좋게 하기 위해 심호흡도 하고 마음을 가라 앉혀 보려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장구를 꺼냈다.. 그리고 채를 들고 앉았다..

그때 어디선가 또 내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었으니--그순간 민원(?)이 들어온다..

"던넵님! 똥냄새나요-- 우탄이 똥 쌌어요..."

으--옥 이대로 내 기분은 다운다운 될것이라 말인가...장구를 다시 뒤로 밀었다..;

기저귀 가는 장소로 데리고 간다..

내 얼굴 표정은 모르긴 몰라도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다..

안그래도 무서운 얼굴이가 말이다--"오늘 몇 번 싸꺼야?? 이제 그만 싸--",

"네--"라고 대답한다..

정리 후 다시 애기반으로 들어간다....

심호흡이고 뭐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9월 3일

막둥이 우탄이가 내 앞에서 턱걸리를 하고 있다.

이유는 준수가 싸가지고 온 김밥 때문,,, 준수가 아침을 안먹었단다..

"우탄아!! 형아꺼야--"하니 이리저리저리지도 못한다-ㅋㅋ 먹들이 싸게 우탄이!!

오늘은 몇 번이나 내 코와 손을 자극할는지... 똥냄새는 너무 괴롭다-;

◎나름대로 변--신(?)◎

9월 7일

주말동안 아팠다... 일요일 저녁에는 열도 났다!!

월요일 아침 힘겹게 출근해 아이들과 눈 인사만 나누고 조퇴를 한다..

병원에 가니 몸살에 편도선이 부어있단다.. 병명은 감기몸살 + 편도선염~;

아프다--

오늘은 그냥 웬지 새로웠다..(ㅎㅎ 가끔 이렇게 하루 쉬어볼까??)아이들의 모습도 나
도..

차를 타고 들어오던 재욱이(똥냄새 맡기의 제왕(?)) "던넵님!! 똥 냄새나요..."한다.

우탄이를 찾는다..

"우탄이 웅가 했나 보구나... 누워보자!!" 우탄이도 놀란 눈치다.. 내 모습은 온화(?)하
다-쿄

'저 선생님이 왜 저런데 많이 아프긴 한가보네 그라~ 뇌에 이상이 있나??' 라는 모습으
로

나를 쳐다본다..

나의 이상행동은 계속된다. "우탄아!! 웅가하니 시원하니?? 선생님이 담아주니 기분이
좋지??"

내 질문에 무시 반응을 보인다..ㅠ.ㅠ;

내가 그동안 너무 했나?? 싶다.. 먹으니깐 싸는건 당연한데 말이다--

나도 지난주 몇일을 억수로 먹었다.. 저녁을 2번씩이나 먹었었다.. 나도 화장실을 2-3
번 간다..ㅋㅋ

지금은 한번도 못간다.. 죽만 먹어서리-

나름대로 즐거웠다!! 우탄이도 편안해 보이고 자꾸 와서는 팔을 벌리고 안으라고 해서
조금 괴롭기는 하지만.. 무게가 장난이 아니다--

이젠 "오늘은 몇 번 싸꺼야?? 이제 그만싸--" 가 아닌

"우탄이 시원하지? 선생님이 깨끗이 담아줄게--"라고 얘기 해 볼란다..

애들도 아프고 나면 '쑥' 자란다 하더라,, 어른도 아프고 나면 '쑥' 자라나??

(더이상 자라면 안되는데 하늘 뚫고 가겠네...)솔직히 몇일이나 갈진 몰겠지만 암튼 핫
팅!

9월 8일

으--옥!! 나의 한계는 진정 어디까지지나...

오늘은 야외활동(산행)이 있는 날이다..

아침에 병원에 다녀오니 애기들과 동그라미를 지키란다... 앓싸!!(동그라미 경력5년이
지만 무색하게도 난 아직 '산' 이 주는 즐거움을 모르겠다!!애들한테는 좋은곳이라고
가르친다..ㅋ)

우탄이와 마똥 그리고4세 규현이(나와 똑같은 증상으로 지금은 회복중..

아무래도 내가 규현이한테 옮은 것 같으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맛있는 점심도 먹고- 우탄이가 졸려 하기에 두너석은 마당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고 재
웠다. 옷 갈아 입히고 씻기고 기저귀 갈고-- 잠이든다...스르륵--

마당에서 즐거움에 들뜬 목소리로 날 부른다. "선생님~ 빨리 와봐요~ 똥이요!!"
순간 아찔했다!! 뛰어 나가보니 마당 한 가운데 똥을 싸고(반바지만 입어서 싸면 바닥으로.. 진짜 내가 팬티 사주고 싶다..-) 발로 밟아~ 딱 사라지고만 싶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 마똥이가 급했구나~다음부터는 화장실에서 하자!!"라는 말을 해야 한다 했지만.. 심호흡을 몇 번 해 보았지만... 다 헛일!!

아예 입을 닫아 버렸다. "셋자!!" 이말 외엔... 그 어떤 말도...

도대체가 왜 왜!!알면서 못하는지 나도 날 잘 모르겠다!!

참참!!이상한 일도 다 있다~

우탄이란 지낸지 언~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하루도 우리의 코와 손을 자극시키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한번도 변을 보지 않았다...

오늘같은 날 이상한(?) 선생님들은 우탄이에게 묻는다.. "우탄아!! 왜 용가 안해??....."

하고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상하다..

마무리...

늘~ "도대체 하루에 몇 번?? 이제 그만좀 해 제발!!"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 두터석만 보면 그 말이 절로 나왔다~

그래서 이쁜 내 새끼들 이라는 생각보다는

'으이구~ 이 똥장군들~' 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커다랗게 놓여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우탄이 시원하지? 좋지?" 이 한마디에 우탄이의 모습이 달라졌다!

2-3일 정도 그렇게 이야기 해 주었지만 그래도 느낌에는

우탄이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용가를 보는 횟수도 줄어 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바 하는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잘 먹으면 잘 쎄다!!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경험(?)해보고 잘 싸보니

우리 아가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ㅋㅋ...

요즘은 많은 선생님들의 격려로 용가 냄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음~ 하루에 한번만 쌀대도 종종 있으니 그렇게 귀찮기만 한 생활은 아니지요...

마똥이 우탄이 선생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엄마와 아가 그리고 아빠의 환상적인 협력작업 -분만

김수연 · 서울지부 회원

지난번에 이어 이번 내용은 100일까지의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분만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내려가질 줄은 나 또한 미리 예상치 못했다. 남자들 군대애기처럼 여자들 애내는 애기는 해도해도 끝이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보관하고픈 마음에 좀 자세하게 쓴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읽어주시기를...

다음번엔 본격적인 육아일기에 돌입합니다.

4월 30일

오전

예인이



6시 00분

밤새 진통땀에 잠을 못 이웠다. 신랑 깨워서 차타고 병원으로 출발!

6시 30분

초음파와 내진을 했다. 자궁문이 2cm정도 열렸다고 한다 조산사가 진통을 오래할 것 같다고 겁을 준다.

7시 00분

태아심장박동검사를 받고 링겔을 꽂고 분만실로 들어가 면도와 관장을 했다. 진통의 간격이 더 짧아지고 강해졌다. 신랑이 배고프다고 아침 좀 먹고 오면 안되겠냐고 한다. (참나 이와중에) 안돼! 내 옆에서 꿈쩍도 하지마!!

8시 00분

관장 후 화장실을 세 번이나 갔다왔는데 뭔가가 또 쏟아질 듯하다. 진통을 견뎌내며 화



장실에 가려하는데 뭔가가 쏟아졌다. 순간 실례를 범했나보다 생각하고 일어나보니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밑에서는 핏덩어리가 떨어졌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야 진행이 잘되는 거라고 한다. 오늘 날이 좋은지 산모가 많다. 30분 간격으로 웅애 소리도 들린다. 겨우 분만실 옆에 있는 분만대기실로 이동했다.

10시 00분

조산사가 들어와 내진을 하더니 진행이 잘되서 네다섯시간 안에 낳겠다고 호흡을 열심히 하란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다. 진통이 오면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고 진통이 끝나면 몸을 이완시키고 배운 건 이걸데 진통이 끝나면 다음 진통이 겁이나 온몸을 긴장하게 된다. 그럴때마다 신랑이 이완하라고 말해주면서 잘한다고 칭찬해준다. 내 옆에서 내 배를 만지며 내게 힘이 되주는 신랑이 있음이 새삼 고맙다.

12시 00분

내 생각에는 아기가 벌써 머리를 내민 것 같은데 조산사는 조금 더 기다리란다.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낳았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는 특히 엄마에게 효도해야 된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진통이 세졌다. 배가 딱딱해지면서 저절로 배에 힘이 들어가며 항문 쪽에 힘이 들어간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다 왜 아무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았는지 모두들 원망스럽다. 이 진통을 멈출 수 있다면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 쯤 분만실로 이동했다.

1시 30분

본격적으로 분만을 시작했다. 아기가 나와도 밝은 조명에 깜짝 놀라지 않도록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음악도 키고, 간호사와 조산사의 말소리도 소곤소곤하게...

조산사가 신랑에게 작은 구멍 속을 벌려서 아가의 까만 머리통을 보여주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가를 만날 수 있단다. 진통에 맞춰 힘을 주기 시작했다. 죽어라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줬지만 아가는 아직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아가는 엄마보다 10배의 고통을 느낀다는데 아가를 위해 호흡도 열심히 해주고)

조산사가 내배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진통이 오자 심호흡하고 호흡을 멈춘 채 온 힘을 다해 꾹 그리길 두세차례 드디어 아가가 머리를 내밀었다. 기쁨도 잠깐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앞에 초록가운을 입은 남자의사가 떡하니 앉아있는게 아닌가?

회!음!부!절!개! 내가 가장 겁내하던 순간이었지만 진통의 아픔에 가려져 별로 의식하지 못했다

2시 19분

자! 이제 마지막 힘을 발휘해야할 순간이 왔다. 마지막 진통과 함께 뭔가가 물컹덩한게 쭉 빠져나오는 시원한 느낌. 뒤이은 '웅애' 아가가 빠져나오자 거것말처럼 진통이 사라졌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찰나 간호사가 "손 올리세요" 한다. 회음부 봉합이 이어졌다. 애기만 낳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흑흑. 이 와중에 나의 딸이 내 품에 안겼다. 눈을 돌려 나와 눈을 맞춘다. '아가야 내가 너의 엄마란다' 건강하게 태어나주워서 고맙다. 월체어에 실려 회복실로 옮겨졌다. 몸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신랑과 나는 애 낳는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6시 00분

저녁밥이 나왔다 미역국이였다. 겨우 겨우 앉아서 미역국 국물을 한수저 먹었다. 너무 너무 맛있었다. 배도 고프고 더 먹고 싶는데 손이 후들거려서 먹을 수가 없었다. 신랑에게 애뜻한 눈빛을 보내니 신랑이 '먹여줘' 한다. 고개를 끄덕 끄덕.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없이 밖으로 나가셨다.

6시 30분

신생아실로 가서 우리 딸을 보았다. 시어머니님 복덩이를 보자 하시는 말씀이 "외탁했네" 하신다. 자그마한 얼굴에 부은눈과 외꺼풀눈이 나를 닮은 모양이다. 앙증맞은 모자를 쓰고 악을 쓰고 울어대는 작은 천사가 내 딸이다. '그래도 뭐 예쁘기만 한 걸 후-후-'

10시 00분

병실이 없어서 분만대기실에서 잤다. 신랑이 나는 숨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자라고 하고 자기는 작은 쇼파에 쏙그리고 잠을 잔다. 정말 잊지 못할 4월 30일이다. 새벽6시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아가야 잘 자라 내일 만나자!!



5월 1일

오전

5시 00분 도저히 못 참겠다. 너무 덥다. 잠도 안 온다. 더워도 이불을 덮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걷어차야 할지 고민할 무렵 구세주처럼 간호사가 와서 어디 불편한데가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덥다고 하니 요즘은 이렇게 덥게 산후 조리 하지 않는다면 너무 덥게 하고 있지 말란다. 너무나 반가운 소리---

아주 특별한 만남

- 안미경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류 지 민 · 인천지부 회원

내겐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산지부의 땀글한 얼굴에 병아리 미소를 지닌 안미경 선생님이 바로 그녀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만남인 것은 1년에 딱 두 번, 여름과 겨울에 만나기 때문이고,

처음 만나던 날 옷을 훌라당 벗고 목욕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친해질 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럼없이 다 보여줄 때라 했던가.

항상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선생님하고 매미가 울던 달밤에 짧지만 진한 데이트를 나눴다.

안미경 선생님은 1998년 해맑은 세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선배들의 권유로 보육교사회에 가입을 했었다. 현장과 교사회의 두 가지 일을 공유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안미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준다. "물론 힘들지……. 하지만 교사회에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힘을 얻고,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더라."

2004년 부산지부 조직부를 맡으면서 제대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이 미안하고 아쉽단다.

10여 년 전, 지역탁아소연합회에서 한국보육교사회로, 또 보육노조로 전환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안미경 선생님은 처음부터 노조로 가는 길을 바랬단다. 이는 보육교사의 사회적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그저 교사라는 스스로의 위로감으로 자기의 권리를 말하지도 찾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안미경 선생님들 임금으로 평가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단다.

자신처럼 노조를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아님 사람이 더 많기에 노조로 가는 길은 많이 힘들 거라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묶어주고 지켜가는 게 우선이라고.

주체가 되는 건 두렵지만 나를 받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든든하다고 그녀는 확신한다.

혹시 별명이 병아리 아니냐는 말에 '양파'란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 중에 수박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옆에서 작고 동글동글해서 양파로 불린다고 한다.

주부로서, 아이엄마로서, 직업여성으로서 1인 3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아이는 친정엄마가 많이 돌봐주신다고 한다. 물론, 자신 역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만 현실을 잘 직시하고 깨어나야 한다고 선배주부로 내게 한 수를 가르쳐 줬다.

너무나 식상한 질문, 보육철학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교사들처럼 으악- 이란 말부터 먼저 나온다. 그래도 꼭 궁금하다 했더니 안미경 선생님은 "보육은 내 스스로가 도를 닦는 과정" 이라고 말한다. 내가 나를 추스르는, 그리하여 내가 커가는, 나를 돌보고 내 아이들 돌보는 게 "보육" 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 눈빛에 또 한번 난 반했다.

처음 대하는 순간에 맑은 웃음을 건넬 줄 아는, 다정다감한 구수한 사투리가 그녀의 매력이었을까.

'지민아-' 하고 불러주는 선생님이 보고 싶어지는 날이다.

힘내라 보육교사



2004 여름수련회 이모저모

- 안미경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바꾸재!

보육의 현실, 보육노동자의 단결로!!

열어라 보육의 미래, 보육노조의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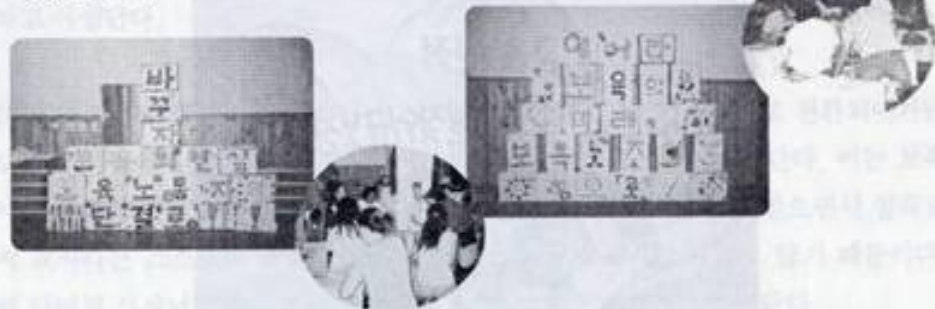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여름수련회

접수하세요~~~



기사 아저씨의 사정(?)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서울지부. 접수부터 해야지요...

상징물 만들기



역시 보육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지요. 꾸미는 방법도, 쌓는 방법도 다양!

보육교사 힘 키우기 - 온 몸으로 놀아보세



부산지부 풍물패의 길놀이로 보육교사 힘키우기의 막은 오르고,



팀 구분을 위해 연두색과 주황색 천을 서로에게 묶어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스크럼 짜고 돌기. 이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지요~~~



물풍선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였으나 깃발은 꿈쩍도 안하고...

결국 몸싸움을 했지요. 엄청난 부상자 속출.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보육교사들의 승부 근성은 어디까지일까...



그 와중에 정자에 앉아 편히 쉬고 있는 저 샘들은 어떤 이유로? (찍힌지 몰랐지요?^^*)



잔디마당에서 대운동장으로 이동!

줄다리기 세판.

1:1 그리고 마지막.



팽팽한 대결로 인해 끝을 낼 생각을 하지 않던 사회자 고양미 샘.

줄다리를 마친 뒤 바닥에 주저앉아 그대를 바라보는 샘들의
원망스런(?) 눈빛이 보이시나요?

지역별 모듬 활동



이야기도 하고 선포식 준비도 하고...

공동체놀이 - 보육교사 그 이름을 사랑한다



사회자 최광기, 초대가수 류금신, 우리나라
그리고 신명나게 노는(?) 보육교사들, 대단하지요!!!

몸과 영혼을 깨우는 체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힘들었을텐데...

그래서 요가 진행을 맡은 샘들은 얼마나 올까 걱정했는데

우와--- 웰빙시대라서인가요?

엄청 많은 샘들의 참여에 자리가 좁더라구요.

전국보육노조건설추진위원회 선포식



경인권 문선대 '뿌리'와 부산 문선대 '할때까지'
(부제가 될 때까지라네요)의 화려한 몸짓



지부별 추진위원장 추대식



축사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이호동위원장

문화적 충격(?)을 받으셨다네요---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이기원 전대표이자 명예회원



우리 모두의 결의를 손바닥 찍기로...
(손바닥찍기 안한 사람도 있대요~~~)



뾰족다리 밟기를 통해 입장한 어린이들과
우리 모들의 결의를 담은 깃발이
입장하여 추진위원장에게 깃발은 전달되고...
(표지 사진입니당~~~)



지부별 추진위 깃발과 함께 무대를 채우고
김명선 추진위원장의 대회는 우리의 가슴을
'평하게' 했지요.

결의문 낭독을 하는 서울지부 최종문 샘과
광주전남지부 김미옥샘.



모두 마친뒤 기념 촬영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샘들과 함께 하겠지요?



전국보육노조 건설을 축하(?)하는 쌍무지개



추진위 깃발과 함께...



사진판도 만들어 기념 사진도 찍었지요. 누굴까요?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보육노조

1. 보육노조를 상징할 수 있는 색깔은 무엇? 왜?

- 파란색! : "하늘"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늘"의 의미 - 희망, 패기, 의지...)
- 노랑(마음속으로 땀기는 색을 빨강) : 따뜻하니까
- 노랑 :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2. 보육노조의 마스코트를 정한다면 어떤 동물이 좋을까? 왜?

- 소 : 눈이 크고 예뻐서
- 늑대 : 늑대라는 동물은 유일하게 가정을 이루어 살며 수컷은 어미가 "死"을 경우 직접 동냥것으로 키우며 산다고 합니다.
- 캥거루 : 아기를 주머니 안에서 오랫동안 보살피 주기 때문에...
- 거북이 : 느리지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 캥거루 : 늘 아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모성애가 강해 보인다
- 코알라 : 모성애가 강해 보여서(항상 업고 다니니까)

3. 보육노조를 꽃에 비유하자면, 무슨 꽃? 왜?

- 꽃다지 : 작지만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드니까...
- 물망초 : 꽃말이 '나를 잊지마세요'니까 힘들 때 보육노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 매화 : 1) 추운 겨울속에서도 봄을 알리는 꽃 2) (흰색의)도도함
- 도라지꽃 : 그 뿌리가 튼튼하고 사회에 약과 음식을 만들어내니까
- 코스모스 : 코스모스의 꽃분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별 등 큰 우주가 보인다. 약해 보이지만 진정한 강함이 있으며 사랑은 우주 전체의 모습을 담지 않았을까?
- 해바라기 : 해바라기 꽃처럼 강하고 크게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4. 보육 노조의 홍보대사로 가장 어울리는 대중 스타는? 왜?

- 채시라 : 모유를 먹이며 자기 일도 열심히! 육아에 열심!
- 강동원 : 잘 어울려서 놀아줄 것 같아서...
- 김종석(뚝딱이 아빠) : 아이들 프로그램에 나온다
- 이혁재 : 평범해 보이면서도 가정적이게 보이면서도 의식이 있어 보이고,

- 아빠로서 보육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이미지가 딱)
- 문소리, 권해효 : 진보적 성향과 고민하는(?) 연예인이라 진보적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5. 보육노조 조합원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동요는? 왜?

- 햇볕, 올챙이 개구리, 비야비야, 산도깨비 : 노랫말이 좋아서, 가락이 좋아서
- 아기 염소 : 모여 있으면 신나니깐(회,애,락이 들어있음)
- 싹트네 :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 비행기 : 우리 노조도 높이 높이 날아가기 위해
- 웅달샘 : 내가 좋아하니까!
- 아기 염소 :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상상.
- 곰 세 마리 : 아이들이 곰처럼 귀여우니까
- 개구리(시냇가에 올챙이...) : 요즘 TV에서도 유행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의미도 있으니까(성장)
- 개구리 올챙이 : 팔딱팔딱 뛰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닮았기 때문입니다.

6. 보육노조 조합원이 가장 잘 먹을 것 같은 음식은? 왜?

- 삼겹살 :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자
- 보쌈 : 내가 좋아하니까
- 커피, 맥주 : 쓰린 속을 달래주고 다시 잘해볼 마음이 들도록 정리를 해준다
- 김치찌개, 오징어 볶음 : 맛있어요!
- 일품요리 :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 감자탕 : 한 그릇에 여러명이 왁자지껄
- 밥 : 밥 심(힘)으로 살아가고 있으이-
- 삼겹살 : 특별한 날, 보편적으로 잘 먹는 음식이니까

7. 보육 노조를 한 단어로 이야기 한다면?(형용사, 동사, 명사만 됨) 왜?

- 빛나다 : 보육교사의 빛나는 눈은 우리의 미래를 밝힌다
- 힘! 쟁! 야호~ 아리아리 : 힘 받을 수 있으니까...
- 희망 : 미래의 희망을 키우니까...
- 꿈 : 모든 교사들이 꿈을 담을 수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 힘 : 숫자는 힘ियो, 조직력도 힘ियो, 돈도(회비 증가) 힘ियो, 힘이 있어

야 승리함으로

- 신명

- 행복, 건강한 교사를 위하여: 교사가 건강, 행복해야지용

8. 보육노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힘을 내서... 함께 가세요. 아자! 아자!

- 가장 소중한 '나'가 모여 가장 행복한 '우리'가 되자!

- 항상 처음처럼,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기

전체 수련회를 다녀오며

최 정 임 · 부산지부 회원

한국 보육교사회에 괴소문이 돈다.

한국보육교사회 내에서 부산에 보라가 꿩과리를 제일 잘 친다고.....

그래서 8월28일 한국보육교사 노조 준비위 출범식에서 풍물을 맡아서 치기로 했다나.

내가 언제 쇠를 쳐왔다고 그런 괴이한 소문이 났는지.

소문의 근원지는 부산지부 사무실 개소식에서 어설프게 길놀이를 했던 것이 원인 제공이 아니었는지.

다급한 마음에 인천에 정미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언니는 사정이 있어 그날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열심히 잘 해 보라는 격려만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쇠를 치는 전혀 치지 못하는 나도 문제지만 부산에서 치배를 모아야 한다니 그것도 문제다.

되던 안 되던 손, 발은 맞춰봐야 하기에 이래저래 치배를 모아보았더니 지금 한참 재미를 붙여서 풍물을 배우는 선생님 세분, 이전에 조금씩 쳤던 분들 대충 모아 보니 20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실력이 안되면 쪽수로 밀어 부치자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쳐 본 선생님을 다 모아 8월부터 연습에 들어가기로 했다.

드디어 연습 첫날 20명 중 겨우 나까지 포함해 다섯 명이 모였다.

천둥과 녹두는 이전에 풍물을 조금 쳤다 하고 무지개 샘과 은방울 샘은 풍물을 배운지 3개월이라 한다. 기본 장단을 맞추어 보는데 기가 막힌다.

3개월 수준을 내가 너무 과대평가 한 것인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날씨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 뿐.

연습 둘째날. 우리가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는 금정산에서 강사님이 판 굿 째는 것을 도와주시려 오셨다.

우리의 실력과 연습하는 인원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웃기만 하신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칠판에 휘모리-자진모리(입장)-인사굿-자진모리-울자진-태극진-오방진-자진모리-인사굿-자진모리(퇴장)-휘모리 이렇게만 하란다.

자진모리에서 휘모리, 다시 자진모리, 너무 단순하고 심심한 판굿이다.

억지를 부려 그 자리에서 호호굿을 연습 시켜 호호굿을 넣기로 했다.

적은 인원이 연습은 하지만 분위기 하나는 100명 부럽지 않다.

마지막 연습 날, 참석 인원은 두 명 더 보태어 7명.

판굿은 일주일간 고민 끝에 중간중간 달여치기, 세마치를 넣기로 하고 맹연습을 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 당일.

연습 한 번하고 시작하겠지 했는데 연습은 무슨 연습.

부산에서 양평까지 너무 먼 거리에다 우리가 탄 차가 길을 잘못 들어 너무 늦게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풍물을 치란다.

인천에서 두 분 샘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연습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치배 모두에게 영 부담스럽나 보다.

"뭣 쳐도 되니 신나게만 쳐라" 하고는 "징—" 소리와 함께 대 운동장으로 이동.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회원님들의 대한영을 받으며 잔디마당에서 한 판 신나게 놀았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틀리게 쳤는지.....'

판 굿이 끝나고 '깃대뺨기와 줄다리기.'

모처럼 힘을 양껏 쓴 것 같다.

저녁 식사 후 약간의 휴식시간에 너무 보고 싶었던 분들도 만나고.

이 땅의 천사인 보육교사들을 위한 노조준비를 하날도 축하를 하는지 쌍 무지개

를 띄워 주셨다. 각 지부별로 연습도하고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던 축하잔치, 모처럼 밤을 지새우며 술과 이야기로 꽃을 피웠던 것 같다. 부산지부 방에 더 빛을 발한 것은 남생 세분이 늦은 밤 찾아와서 같이 술잔을 기울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나만의 생각인가?.....)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강당에서 노조 추진위 출범식을 시작했다. 매 순간 순간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해진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선배님들 얼굴도 스쳐 지나가고, 여하튼 모처럼의 신나는 1박2일을 보낸 것 같다. 한국 보육교사회, 아자! 아자! 아자!

양육·교육비 중복 공제 허용

금액도 100만원·200만원으로 늘어

2004/10/6

올 연말정산부터는 만 6살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6살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지금은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때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양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여성 노동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노동자만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도 50만원이다. 또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나 부인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김세준 기자 skang@hani.co.kr]

지부활동

[경기지부]

타는 목마름으로...

김미숙·경기지부 회원

나는 청개구리다.

봄에는 가을이 그림고...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해 보고.....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이 가을에는 그림기만 하다.

가을은 시골 어머니의 마음처럼 풍요롭기도 하고 짧은 가을이 놓치기 싫어 아쉽기도 하다. 8월 마지막 여름에 있었던 우리들의 작은 외침도 특별하게 기억된다.

여름의 끝자락에 걸터 앉아 있다. 토요일 오후 여전히 햇살은 따갑다. '어디는 주 5일을 근무 한다던데 좋기도 하겠다' 하는 부러움과 동시에 토요일까지 꾹꾹 눌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우리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실망감마저 든다. 하지만 보육교사회 여름수련회에서 행복한 시간이 펼쳐지리라는 기대감에 괴곤한 줄도 모르고 네 바퀴 커다란 차에 몸을 실었다. 지부별로 혹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오랜만에 만난 교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다.

모두들 같이 부를 노래로 (바로 그 한사람이, 내일의 노래, 또 다시 앞으로....)를 연습하고 불렀다. 난 멀미를 심하게 해서 맨 앞 조수석에 앉았는데 몇 초 간격으로 계속되는 딸국질에 속은 울렁울렁, 인쇄되어진 노랫말도 어질어질 흐릿해져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도 귀에 익은 노래들이라서 중얼중얼 따라하긴 했지만 제 정신은 아니었다. 빨리 캠프장에 도착해서 땅을 밟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노랫말 하나하나가 곧고 힘이 있어 나의 마음이 비장해지기까지 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리라는 뭔가 특별함이 느껴졌다. 드디어 내가 잠시나마 그리워했던 땅을 밟게 되었다. 초록으로 펼쳐진 들판과, 코끝에 느껴지는 풀과 나무 냄새로 인해 어지럽던 내 머리는 어느새 맑아짐을 느낀다. 숙소를 배정 받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여장을 풀고 강당에 모였다. 우리들은 저마다의 요구들을 담아 색종이를 장식해 나갔다. 보육교사들답게 형형색색 개성들이 묻어난다.

나이가 들면 밥 힘으로 산다고 누가 그랬던가! '아- 무지하게 배고프다' 맛있는 밥상

을 받고나니 행복했다. 탕글탱글 누워서 한방 식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임무가 맡겨졌다. 지부별 퍼포먼스를 준비하란다. 내용은 준비했는데 퍼포먼스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지 않아서 지부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둘러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바쁘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행복한 동지애. 9시가 되어 우리 다시 강당으로 모였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실어 한목소리로 민중가요를 부르고 이어지는 민중가수들의 힘있는 노래는 우리를 더욱 하나로 묶어지게 한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몸짓으로 움직였다. 마치 지금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한 목표를 향해 가는 노동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이렇게, 전국보육노동조합 건설 추진위원회 선포식!

지부별로 준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바쁜 와중에 어쩔 그렇게 멋들어지게 준비를 했는지 놀란다.

나는 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선배 투사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외치던 시간들을 바라보았다. 그 정도 수위에는 못 미치겠지만 보육교사의 한사람으로써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노동조합의 창립을 기다려왔다. 이런 나의 바람이 눈앞에 펼쳐질 줄이야!!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단지 준비를 하는 것일 뿐인데, 마치 노동조합을 만든 것 처럼 흥분이 된다. 이런 흥분과 기대를 모아 한마음으로 노동조합 창립에 힘을 보태자. 보육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질 높은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해본다.

행복한 교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돌볼 수 있듯이....

[광주전남지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마지막 몸짓?

김영금 · 광주전남지부 회원

구름 한 점 없이 그야말로 맑은 하늘과 따듯한 햇빛이 내리쬐는 가을날, 광주 5.18기념 공원에서 '내딛는 한걸음, 하나되는 큰 걸음!'이라는 기치를 걸고 '호

주제NO! 평등가족 걸기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 연합이 주최한 이 행사에 우리 교사회에서도 제가 기획단에 결합해 두달여간 행사를 함께 준비하였는데, 사실 난 기획력의 한계도 느껴지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진행하는 기획단 회의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연합이나 다른 단체들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나 강좌등의 작은 행사들은 자주 치러 왔었지만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하는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기는 처음이었지요.

이번 행사는 '대회' 형식이 아닌 공원의 산책로를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여러 참여 마당을 함께 해봄으로써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염원을 모으는, 참여가 있는 '걷기 한마당' 행사였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몸풀기 체조를 했는데 이전 우리 교사회 식구들이 준비했지요.

한창 TV에서 유행하던 '개구리와 올챙이송'을 우리 회원들과 회원 아이들이 함께 연습하고 준비해 무대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회원의 아이는 틀리면 안된다면서 행사전날 잠자기 전까지 연습하고 또 당일날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동영상을 보며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더군요.

행사는 몸풀기 체조로부터 시작해 자기 몸을 꾸미는 퍼포먼스, 페이스페인팅, 호주제 삽화 전시, 나의 평등지수 체크하기, 평등의 염원을 담은 깃발 꽂기, 21세기 새로운 가족의 유형과 호주제 없는 세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전시와 다양한 대동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연대의 거리를 마련하여 쌀수입개방 반대와 생활환경문제, 현재 광주지역에서 치열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반대 선전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를 치루고 나니 아쉬운 점이 넘 많습니다. 기획단에 참여해서 준비할 때는 잘 떠오르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끝나고 나니 '아! 그래 -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등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구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충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행사 자체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 부분에만 더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구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고 황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선전을 시도한 애드벌룬은 달아는 지 하루 만에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밤새워 행사장에 달아놓은 40여개의 선전 프랑 또한 아침에 와보니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구요. 알고 보니 공원을 따라 아침 일찍 운동하던 시민의 제보로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치웠다고 하더군요. 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아마 그분은 호주제를 없애면 안된다고 생각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동안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의 길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호주제를 없애면 우리의 가족이 붕괴되어버릴 것 같은, 혹은 우리의 전통이 사라진다고도 말하는 세력들의 끈질긴 반대.

나는, 내 자신은 호주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우리 생활 곳곳에 호주제로 인한 불평등은 존재하고 있지요. 가장 흔한 예로 아직도 아들을 낳아야만 뭔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것 같고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올해 호주제가 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극 보수당(·)의 국회의원들도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나섰다고들 하니.... 그 기대가 현실로 다가오기를, 이번 행사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마지막 몸짓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꼭 호주제가 폐지되어 그 씨앗이, 내가 몸담고 있는 보육현장에 존재하는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데도 큰 힘이 될 수 있게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 소모임 소개 |

근로기준법 소모임

신 연 주

“우린 법없어도 살 사람들이야”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이 있나요. 대다수 선하고 순수한 보육교사들은 법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저 순하다 순해서인지 법조차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또한 아는 만큼 찾아 낼 수 있는 것이죠.

‘근기법소모임’은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보육교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연구로 시작해서 각종 관련 법률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던 모임입니다.

모임은 매월 1회 모여 근기법을 비롯한 각종 관련법들을 보육현장의 사례와 함께 비교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후 모임의 결과물을 모아서 소책자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의 권리찾기의 첫걸음—‘근로기준법소모임’에 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지부]

여름수련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유 현 민 · 디딤어린이집 자원활동가 사시연 17대

2004년 8월 29일 저희는 양평리조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기 일주일 전 서울에서 대구까지 힘들게 내려오신 선생님 한분의 알찬 O.T로 양평리조트에서의 봉사활동은 순조롭게 시작 되었습니다.

이곳, 양평리조트에 봉사를 오게 된 계기는 전국에 계시는 보육 교사들의 뜻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이 자리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온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연구회라고 하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봉사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우선 저희에게 주어진 방에 짐을 풀고 자활들을 위해 단체 티셔츠를 주셔서 그 티셔츠로 갈아입고 서둘러 강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일주일전 O.T를 오신 선생님의 지시를 듣고 저희는 각자의 담당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유아반을 맡는 자활과 강당에 조명과 영상기를 담당하는 자활, 그리고 마지막 한조인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한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조였는데 저희조가 맡은 처음의 임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힘껏 던지실 물풍선을 800개를 만드는 임무였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끝내시고 대운동장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모든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대운동장에 모여서 사회자의 지시를 받고 이어달리기와 미리 준비해둔 물풍선을 던져 상대의 깃발을 빼앗는 기마전 놀이를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한편으론 많은 시간에 걸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많은 물풍선들이 한 순간에 터지는 것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자활로써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모든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서로의 목적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저희 자활들이 한 것은 본부로 이동하는 것이였습니다. 많은 무거운 물건들이 있었지만 자활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잠시나마 긴 시간의 휴식이였습니다. 저희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 모든 교사들은 영상물을 시청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상물이 끝난

후 미리 준비해둔 뿔풀이 안주와 술을 각 방에 들고 가서 뿔풀이 시작과 함께 자활들의 첫날 활동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밝은 해가 뜨고 둘째날 저희 자활들의 눈도 떠졌습니다. 오늘 저희 자활들이 할 봉사는 어제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모든 자활들이 깨끗이 씻고 어제 입은 뿔방울이 뻗힌 파란 단채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강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강당에 모인 저희 자활들은 한분한분 교사들이 모일 때마다 자리 안내를 하고 모든 교사들이 모이고 레크레이션이 시작되자 모두에게 팜플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들 아침 이른 시간이었지만 각 지역의 보육교사들이 자기 지역의 회원들을 소개하고 장기자랑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직 어린 저로써는 보육교사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를 오고 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시고 어린이 인권을 위해 활동 하시는 전국의 많은 보육 교사들이 있구나' 라는 깊은 생각을 잠시나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전국에 계신 모든 교사들이 소개가 끝나고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마지막으로 모든 교사들이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보육 교사의 큰 뜻을 담아 찍을 수 있는 깃발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색의 물감을 준비하고 물감에 젖은 손을 쉽게 닦을 수 있도록 물티슈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노래가 끝나고 깃발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깃발이 필력이며 이번 한국 보육 교사회 의 큰 모임은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부]

아이들과 함께한 마술공연(?)

박 회 순 · 부산지부 회원

호호호~ 칙칙폭폭 어린이집 휴직교사라는 억지 꼬리표를 달고 있는, 전업주부가 된 지 이연 30여개월 된, 딸딸이 상미, 성미엄마인 나, 사람이 사무치게 그럽고, 눈치코치도 둔해지고 우쭐든 기회만 된다면 기꺼이 나다니고만 싶은... 그런 내가 외출을 한거였다 우. 그 가을 하루가 어쩌나 상큼하고, 만나는 사람들 또한 살갑고 반갑던지.... 와~ 대단해요!!!

어디서 이런 결속력이 나오는 걸까?

부보회 모든 어린이집이 거의 출동한 것 같다.

칙칙폭폭, 썩썩, 반디, 포구나무, 해야해야, 쿵쿵, 해바라기, 멀리 양산에서 온 해맑은 세상 까지 (또 있나... 빠졌으면 죄송!!) 덕분에 반가운 얼굴들을 한꺼번에 볼 기회였고, 고맙고만한 아그들 니네 할 것 없이 정겹더라.

『비영리, 공동체방식으로 운영하는 부산보육교사회소속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주기 위해 마술 공동 관람을 기획하고 관람 후 한가위를 맞아 공동체 놀이 강강술래 마당을 펼쳐 함께 어울려 노는 대동세상의 맛을 경험하게 한다.』 취지야 어떻게 몸과 맘이 채워지는 날이었나봐.

나야, 물론 칙칙폭폭 어린이집에 함께 얹혀 부산대학교 문창회관에 도착.

3,4세 동생들과 벤치 나무아래서 루루랄라~ 나무가지 줍고 돌맹이 줍고 코에 바람 넣고 있었지만, 큰 반 아이들은 의기 양양 문화적 혜택을 누리러 입실했지.

공연장의 어수선했음에 들리는 후문에는 "수익 사업이라더라 부보회 너무 수익하는 거 아니냐며...." 다들 아는 처지라 시시콜콜 공연준비의 허술함을 따지지는 안았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든다.

관람 후 나오는 아이들은 신이 나서 "풍선이 입으로 들어가고 어찌고저찌고 ..."

탁 트인 대운동장!!

땅!!! 아이들 보다 교사들이 더 신나서 800m 트랙을 돌고 방~ 방~ 뛰어 다니며 대운동장을 누볐지.. 장구 장단에 맞춰 커다란 원들이 "ㄱ-강강술래, 강강술래, ㄱ-ㄱ" 빙글빙글 대동놀이 한마당... 비록 도중에 대학생들 수업중이라며 운동장에서 내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걸, 그해 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함께 손 맞잡고 도는 우리가 있어 마냥 좋은걸.

열악한(?) 환경-지킴이 아저씨의 눈총-에도 곳곳이 몸뚱 몇 어린이집도 있더라....(샘들 존경하요!!) 그해 우리 또 뭉치는 그날까지 에너지를 원없이 충전하고 가야지. 샘들 아그들 그동안 몸 건강히 화이팅!!!

[서울지부]

서울지부인(?)이 되기까지

이 수 미 · 서울지부 회원

저는 서울지부 아니, 보육교사회 회원이 된지 2년이 조금 넘은 회원입니다. 몇 년씩 묵은 선배들 앞에서는 아직 햇병아리처럼 보이는 햇수일지 모르나, 2년이 되기까지 나름대로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1. 첫째 - 뜨거운 첫발! 의욕이 왕성!

누구나 처음엔 의욕이 앞설 것입니다. 저는 누구 못지않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무섭게 덤벼했습니다. 서울지부의 운영위원들과 경쟁이라도 해 보려는 듯이, 아니 그분들에게 내 모습을 각인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나를 보니 어떠냐?" 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우습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나를 돋보이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치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잘한다 칭찬해주던, 선배들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2. 일본 연수 - 그 설렘!

사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보육교사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일본 연수를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서울지부 활동 일년 정도 되어 일본 연수를 가게 되니, 정말 신이 나고 설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의 저는 알뜰게도 보육교사회와 서울지부에서 제 실속 처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제에게 보육교사회는 실속있는 정보와 서비스로 저의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아주 탐욕스럽게 구는데도 말이죠! 어쨌건 저는 2주간의 일본 연수를 통해 조금이나마,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보육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모임 - 분노! 그리고 망설임!

2003년 3월 서울지부 월모임에서 보육환경의 부당함과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근로기준법 모임이 결성되었고, 그 모임의 회원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모임에 들게 된 동기는 교사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너무 모른다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저 알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된 일인데, 일년이 넘게 모임이 계속되다 보니, 열악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아는 만큼 나누어야 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조금씩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있어도 되는데...내가, 왜... 나는 편한데, 아이고..." 이런 생각들이 들자,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회원 활동도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4. 사람! 사람이다!

이번 여름 마음도 무거워지고, 활동도 하기 싫어질 때, 저를 잊지 않고 연락을 해주는 서울지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다정할 줄 몰랐던 본인데, 정말 제가 힘들 때 은근과 끈기로 연락해 오는 박인해, 김숙자 선생님 덕분에 혼자 의 슬럼프를 잘 건너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의 무게로 지칠 때 사람의 정으로 다가올 줄 아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함께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열정! 여름수련회

마음이 돌아서서 여름 수련회를 가기로 하고 서울지부 사람들이 함께 가는 차에 탔을 때, 두 달간의 서먹했던 감정도 차분히 가라앉고, 반가운 마음 가득하게 서로를 반길 수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각 지부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울지부 사람으로 한구석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서울지부인 것 같습니다. 이년여만에 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왜 보육교사회에서 함께 해야 하는지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도, 또한 우리의 약함을 우리만큼 함께 나눌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지부, 보육교사회에서 하려는 일들에 대해 소극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담만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활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 사람을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안에서 커 나가고 싶습니다. 서울지부는 저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울산지부 준비위, 카페 생기다~!

(쓸사람이 없어서 일단 김지희 씀~)



지난 9월 18일, 한국보육교사회에 새로운 지부 준비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울산지부 준비위원회!

출범식때 보인 결의에 찬 울산 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 울산지부 준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출범식 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울산지부 준비

위원회는 인터넷에 지부 보급자리도 마련하였답니다.

<http://cafe.empas.com/kdtaus>



카페 대문에서는 따뜻한 그림과 방문 환영인사, 회원들의 사진이 반갑게 맞이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울산지부 회원들이 이 공간을 튼실하게 채워 나갈 것을 생각하니 왠지 가슴 벅차오르네요.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보세요. 자유게시판에 환영의 글도 남기시고요.

점점 성장해나가는 울산지부 준비위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한국보육교사회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2004년 각 교육원에서 실시된 보수, 승급교육의 실태를 말하고 싶다.

박은아 · 인천지부 회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보수 및 승급교육을 위하여 적어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 만큼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난 선생님들은 이구동성 시간과 돈이 아깝다 하였다. 또한, 각 교육원별로 나눠 먹기식의 돈벌이 장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출석 체크에만 열중하고, 실제 교육내용 및 강사진에 대한 진단은 얼마만큼 꼼꼼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인천에 있는 보육교사 1,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 것이라면 세심하게 위 내용을 신경써서 배려했으면 더욱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세세하게 교육원 별로 나열하고자 한다.

교육원	교 육 원	바 랸
K 교육원 (보수교육)	- 교육내용의 현장 활용도가 낮으며 강사진의 자질이 문제가 많았다. 강의 내용에는 충실하지 않고, 광고 업체에서 나왔는지 선전만 열심히 했다. 또한 "교사의 자질론"에서는 원장의 대변인인양 운영자의 편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교사의 무조건적 희생론을 펼쳤다.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더 열만 올렸다.	* 같이 있게 "세미나" 또는 "토론식"으로 진행했으면, 그리고 현장에 있는 풍부한 교수진을 영입했으면 한다.
	- 의무교육에다 시간 때우기 식의 강의 내용이 많았다. 사전조사 후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했으면 했다.	
	- 간식은 웬 차별: 보육교사와 시설장 교육에 내용물이 달랐다는 치사한 처사	
	- 교육비 돈은 어디다 쓰고 "개인준비물은 이렇게 많은지" 완전 형식이었다. 활용도 20% 미만 이었다.	
	- 지리적인 위치와 시간 배려, 냉난방 시설은 좋았다.	
		* 교사들의 근무 연수별로 나누어 교육이 되었으면...

교육원	교육원	바람
I 교육원 (보수교육)	- 교육원 왔는지 점검받았는지? 에어컨 한 대에 선풍기 몇 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헉헉. - 교육원은 미안했는지 아이스크림, 김밥 공세로 - 내용은 형식이고, 5년 전 승급교육에서 받았던 내용을 "레크레이션" 2004년 헌 보수교육에서 다시 재현 할 줄이야!! ■양성평등에 맞지 않는 손유희 ■"교통안전" 내용은 형식수설 / 과충우물 - 시설운영자의 편의대로 공식적인 교육시간대가 변경되었다는 점. 예) 3시 30분이었던 교육시간이 원장들의 요구로 5시 30분으로 연기되면서 10시 30분에 끝났다. 귀가차량의 문제와 다음날 보육에 무리가 있었다.	- 하루에 한가지 교육이라도 심도있게. - 대체인력 활용하여 근무시간대에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S 교육원 (보수교육)	- 시간 때우기 식, 도움이 되지 않았다. - 근무시간 이후 교육이라 6일 동안 케이오 30초전, 파김치 (월-금 저녁 7:30-10:20) / (토 3:00-5:30) - 시설 자체도 열악하였다.	
S 교육원 (승급교육)	- 승급교육: 요즘 추세에 맞은 내용이 좋았다. (친환경 먹거리, 발도로프 인형 만들기, 종이접기,...) 방과 후 현장 사례도 실제 운영에 잘 맞은 교육이 많았다. - 교육비용: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은 교육비가 다르게 지원되 어야 한다고 본다. (보수: 57,000원 / 승급: 87,000원) - 보수교육과 승급교육 교육비가 다르게 책정될 경우, 지원금 액도 다르게 지원되어야 한다. 현행은 보수교육과 승급교육 지원금액이 동일한 상태이다.	-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몇위라 하면서 실제 교육에 있어서는 제로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녹색연합"처럼 실제로 활동하는 곳을 추천하고 심을 정도이다.
J 교육원 (보수교육)	- 시간 채우기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 교육원장 자질에 의문이 간다. (정보센터 게시판 참조)	

• 마지막으로 교사교육이 시간 채우기식 강의가 아닌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는 검토가 있길 인천시에도 바란다.

• 위내용은 보수교육과 승급 교육 참석 후, 보육교사회 회원들의 토론 내용입니다.

중앙활동

생활속에 실천하는 아동인권 2.

서 정 은 · 본회 정책위원

2회에 걸쳐 진행했던 [보육보육교사 아동인권 감수성 키우기 워크숍]에서 약 60여명의 교사가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호에 이어 보육시설에서 아동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석자들은 우리 보육 현장에서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를 이뤄내기 위한 고민과 토론, 활동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필자는 '아동인권을 해치는 치명적인 잘못'으로 재정리하였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인권을 해치는 치명적인 잘못들

부모들과 떨어져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무르게 되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일과에 적응하여 큰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하루를 의탁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올려다 본 교사의 모습은 어떤지?

유아들은 하루 일과에 밀려가며, 그 과정에서 개별의 욕구가 고려되지 않은 채 자신은 아동 자신이 아니라 전체의 성원 중 일부라는 걸 계속 학습할지도 모른다. 최대한 기분을 잡치게 하는 여러 기계 속에서 자신의 정서적, 육체적 상태에 대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배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을 배려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탐색과 관계를 맺기보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로 다듬어 가면서 너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권리는 자신의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남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싹튼다. 우리의 아이들이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남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아동 개개인의 인권이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는 우리 현장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하면서 한 반의 일상적인 인권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너무 서둘러 묻지는 말자. 그 많은 아이들의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어떻게 전체 학습의 질서와 체계를 갖추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다. 워크샵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전체 아동을 중심으로, 한 반 운영을 더욱 고민해 왔음을 인정하는 게 우선적인 순서이다.

다음은 워크샵 참석자들이 우리 현장에서 아동인권을 해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필자는 우리 교실에서 한, 두 교사와 다수의 아동들이 지내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난 후에 다음 내용을 참조하길 바란다.

1. 최대한 압박하고 강요하기

이 부분은 참석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으로서, 보육시설에서 교사들이 아동에게 빈번하게 협박이나 강요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협박이나 강요보다는 덜하지만, 설교와 잔소리로 아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다. 그러기에 보육교사는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① 시간표와 일과구성의 느린 진행

교사들은 아동 개별의 욕구와 사정을 바꿀 수 없는 요인으로 보육시설에서 진행해야 할 하루 일과가 있음을 들었다. 아동 개별의 상태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교사도 괴롭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하루일과표를 지켜야 하는 법칙으로 여기서는 곤란하다. 빠짐없이 해야 할 일이 숨 돌릴 틈 없이 기다리고 있는 하루 일정을 지키려면 아이들의 의사표현과 참여는 틀림없이 소홀히 다뤄진다. 무엇을 위한 일과구성인지에 대해 자문하고, 딱딱한 시간표와 일과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② 하루 일과의 결정을 아이들이 하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간 어른들이 누리왔던 권력의 일부분을 아이들에게 넘겨야 한다. 아이들이 하루종일 무질서하고 교사가 기대했던 학습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지 염려한다면, 시종일관 교사 중심으로 힘겹게 아동들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행착오는 필연적이다.

③ 아이들 스스로 규칙 정하기

하루 일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아이들과 상의하고 하루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아이들과 결정하고 지키도록 한다.

규칙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규칙이 적용되는지, 그것으로 인한 손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아이들이 충분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규칙은 지켜야 할 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굴레로 작용할 뿐이다.

④ 아동의 요구와 의사표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자유로이 물 마시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기, 필요한 재료나 물건을 요구하기 등 너무나 당연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가 자주 무시되고 있다. 많은 아동들의 개별의 욕구를 다 어떻게 들어줘야 할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민 안에는 교사가 전체를 유지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성인 중심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 아동들은 자신의 욕구를 그저 표현만 하고 교사가 자신의 의사를 받아줬다는 것 자체로도 만족할 때가 있다. 그것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말이다.

2. 한 아이마다 최대한 거리두기.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하나의 아동으로 여기기보다는 한 반을 이루는 집단 성원으로 아동들을 대하고 여기는 것은 여러 면에서 드러난다. 교사들은 한 아이와 일대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더욱 갖고 한 아이마다의 다른 처지와 상태, 요구에 대해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① 아동과 개인적인 시간 갖기

매일 일정한 수의 아동들과 짧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 이를 주간, 월간 계획으로 확장하자.

② 아동의 기분 표시판 만들기

여러 아이들 중 한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고안해서 실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세경이면 성인과 거의 같은 감정상태를 느낄 수 있지만, 성인과 같은 언어수준으로 이를 표현하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교사가 언어적 방식으로 아동의 상태를 교사나 타인에게 알리기를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어떤 아동들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의사표현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비언어적인 방식을 활용해보자. 예를 들어 '기분표시판'을 만들어 아침 등원 때와 오후, 또 아이가 원할 때 기분 표시판에 아이들과 미리 상의하고 약속한 색종이를 꽂게 한

다. 아동은 자신의 기분과 몸 상태를 알려주는 색깔로써 자신을 표시하였고, 교사는 그것을 참조해서 아이 하나하나의 상태를 주의하고 관심을 갖는다. 기분 옷걸이 활동(기쁜 표정, 슬픈 표정의 목걸이 걸기)도 유사한 경우로 참석자들에게서 제안되었다.

③ 식판이나 도시락 사용 자제, 집단 배식에서 개별 나눔으로

점심식사는 최대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대규모의 보육시설일수록 군대나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집단적인 배식문화를 갖고 있다.

점심식사는 식판이나 도시락이 아닌 가정식 밥상 차림이 좋겠다. 점심식사 배식의 형태도 한줄로 서서 식판으로 배식하는 게 아닌, 교실안에서 교사가 개별 아동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으로, 가정과 같은 온화한 분위기로 식사시간을 갖자는 취지이다.

④ 아동의 휴식 공간 마련하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아동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아프거나 무기력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잠시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다. 하루종일 자신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관찰되고 비교되고, 평가되고, 지시되고, 촉구되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 성인의 경우, 하루 8시간 직장에서 돌아와 느끼는 피로감을 아동들도 보육공간안에서 느낄 수 있다. 아동 개인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교실 내부와 외부에 만들자. 교실에 내부에는 폭신한 쿠션을 두고, 사방의 시선을 가릴 수 있는 작은 집을 꾸미고 '혼자 있고 싶어' 등의 문패를 달면 어떨까 싶다.

3. 최대한 기분을 잡쳐라

즐거운 식사시간, 달콤한 휴식인 낮잠시간, 자유로운 이동과 선택 보장된 자유놀이 시간, 다른 친구와의 잡담과 교류, 배움의 즐거움이 충족되는 시간 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잔소리하여 아이들의 기분을 있는대로 잡치게 한다. 그래서 감정표현이 억제되어 다소 무덤덤하고 유순한 아동들로 살아가는 게 더욱 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① 즐거운 식사 시간 만들기

일률적인 간식 제공 시간에서 원하는 시간에 간식 가져다 먹기, 원하는 만큼 밥과 국의 양을 정하기, 밥 먹을 때 잔소리 하지 않기, 싫은 반찬 강요하지 않기, 교사와 한 상에

서 먹기, 다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기 등 식사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표현하게 장려하고, 표현된 의사를 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② 낮잠시간

개별 아동에 따른 낮잠 시간 선택권 주기, 낮잠을 잘 자리와 짝 선택권 주기, 낮잠 자고 나서 아이들 안아주고 뽀뽀해주기, 억지로 잠재우지 않기, 깨끗한 침구 제공하기, 낮잠 잘 때 베개 주기

③ 활동

흙탕물 놀이 맘껏하기, 바깥놀이 자주 가기, 아이들이 땀 수 있게 하기,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좀 더 아이들의 생각을 수용해 보기, 벌을 주거나 야단친 후 아이와의 개인시간 갖기, 즐거운 놀이 마음껏 놀기, 아동들이 힘들어 할 때는 산책, 소풍, 나들이에 손을 잡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줄을 서지 않아도 되기, 바깥놀이 안가고 싶은 사람은 안에서 쉬 수 있는 선택권 주기, 활동시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만 둘 때를 정하도록 보장하기 등 개성과 신체적, 정서적인 개인의 성향을 존중한다.

4. 최대한 큰 소리로 교사의 인격을 폭발하라.

체벌과 옷을 잡아다니는 등의 거친 행동을 보여주지, 아이에게 짜증내거나 극단적인 언어로 공격하기, 말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방치하기, 교사 생각에 미루어 짐작해서 결정하기, 아이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대우하기(난방 안 된 교실에서 교사는 슬리퍼에 파카입고 아이들은 맨발로)등등 참석자들이 바라본 교사들의 비인권적인 모습은 그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아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성숙한 교사가 필요하다. 내면의 성숙을 이룬 교사는 아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기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그보다 앞서서 교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품성, 자세에 대한 연마가 매우 필요하다. 개인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짐이 많은 사람은 남의 짐을 나눠 질 수 없다. 우선 그 짐을 내려놓아야 빈손이 생기며, 그때 다른 이의 손을 잡고 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수의 아이들의 손을 잡기 위해 내 짐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선택이나 결정, 계획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의견을 공유하기',

'조금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어 아이들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기',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결심하였다. 한 참석자는 '나의 삶과 아이의 삶이 동행이 되도록 하기'를 실천약속으로 결심하였다. 교사의 삶과 아이의 삶이 동행이 되기 위한 과정에 아동 인권이 놓여있다.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걷기대행진 참관기

김 지 희 · 본회 조직부장

세상을 살다보면 수많은 차별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숨을 조여온다. 20C를 훌쩍 넘은 21C에, 그대가 여성이라면, 장애인이라면, 비정규직이라면, 이주노동자라면, 빈곤하고 실업상태라면 그대는 이미 사상 최악의 '차별'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셈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차별의 진상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함께 철폐의 목소리를 모아보고자 노동, 여성,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전국걷기대행진은 기자회견(9/13)을 시작으로 매일 하루씩 여성 차별 철폐의 날(9/14),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9/15),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날(9/16),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의 날(9/17), 빈곤 · 실업 추방의 날(9/18)로 정하여 걷기 대행진을 진행하고 마지막 19일에는 마무리 행사가 있었다.

14일 여성 차별 철폐의 날, 교사회 식구들도 거리에 나섰다. 차별 철폐를 상징하는 보라색 천에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어 허리에 두르고,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걷기를 시작한 우리들은 '호주제 폐지', '여성비정규직 철폐', '보육의 사회화, 보육의 공공성 확대', '가족관련법 개정' 등의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며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호소하였다.

오랜만에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처럼 손동작도 시원하게 내지르며 걸던 전주 선생님, 풍모처럼 고요하지만 어깨에 두른 보라색천 때문에 아이들과 수퍼맨 놀이 하다가 나온 것 같은 분위기의 숙자 선생님, 행진 내내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다른 단체 활동가들도 이야기하면서 걸던 윤경 선생님, 모자도 없는데다가 허리가 가늘어 보라색천이 몸을 너무 많이 감싸 더위에 허덕이던 진숙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들 보는 재미와 고깔모자 같은 타단체들의 의상(·) 보는 재미가 짝퉁하여 걷는 시간이 그다지 지루하지 않았다.



국회앞에 도착한 행진 참여자들은 각 단체가 준비한 이벤트를 보여주었는데, 교사회에서는 '돌봄이 사라진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전지 2배만한 거대한 동화책을 만들어보았다. 동화책 제작에 지대한 공헌을 한 미나 선생님은 국회에서의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총 6명이 진행하는 동화구연을 무사히 마쳤다. 돼지책을 원작으로 한 이 동화는 어머니가 떠나면서 사라진 돌봄노동의 자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나레이션을 맡은 전주선생님의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외침이 인상적이었다.

단체의 이벤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여성단체연합이 준비한 호주제 폐지 퍼포먼스였는데, 여러사람이 노끈으로 튼튼한 그물을 만든 다음 거대한 노란 공을 그물위에서 띄우는 행위였다.

무더웠던 한낮의 열기가 단체들의 각종 이벤트를 통해 수그러지는 가운데 호주제 폐지 결의문의 낭독을 끝으로 당일 행진은 마무리되었다.

처음 걷기 대행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이런 살인적인 기획을...' 하며 괴로워했지만 행진 참여 자체는 한동안 사무실에 죽순이에게는 즐거운 이벤트였다.

하지만 확실히 아쉬웠던 점은 모든 차별의 굴레를 잠시나마 떨쳐낼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거나, 각종 차별에 맞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내지는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만한 대정부 행동이 더해졌다면 보다 보람찬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어떠한 행사이든 자축의 분위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점점 확대되어져가는 차별의 영역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문제 제기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 싶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한다는 것

이 경 아 · 정책위원

"남편의 귀가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어서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날은 심중판구 '특별히 중요한 접대'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술 자리에 이어 성매매까지 이어진다는 걸 직감으로 안다. 이런 날에는 남편을 곁에 재워 줄 수가 없다. 밤새 속앓이를 하다못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남편 얼굴에 상처를 낸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찻집한 기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2년 전 한 신문지상을 통해 소개된 어느 주부의 고백이다. 이런 종류의 찻집함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사는 기혼 여성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 찻집함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그래 맞아' 하는 공감보다는 '어쩌면 저런 걸 말로 할 있을까'라는 거리감을 먼저 갖게 되는 건 왜일까.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음으로써 공모하고 있는 거대한 전제가 깔려있다. 인간 세상에서 성매매가 사라지는 날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상상력의 빈곤 말이다.

200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산업 규모를 추정해보면 이렇다. 연간 성매매로 오가는 돈, 소위 말하는 '화대'의 규모가 24조원.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4%에 해당하며 농림어업분야 총생산에 맞먹는 액수다. 하루 평균 성구매자는 약 35만8천 여 명. 이는 20세에서 64세 남성 성인 인구의 20%가 월평균 4.5회 정도의 성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계산이다. 한편 성매매 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만 최소 33만명에 이르고 전업이 아니라 '보도방' 등을 통해 성매매에 투입되는 여성의 수도 같은 정도에 이른다. 이를 합하면 우리나라 20-30대 여성 인구의 8.2%가 성산업을 통해 소득을 벌고 있다는 얘긴데, 이는 같은 연령대 취업인구의 16%에 해당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렇고 그런 곳에서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가정이 있는 집이 다섯 집 건너 한 집. 취업 한 이 삼십 대 여성 여섯 명 중의 한 명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사회. 놀이터에서 주운 단란주점 전단지들 가지고 딱지치기 놀이를 하며 아이들

이 크는 사회. 큰 아이가 다니는 독서실은 성인용 피시방 바로 옆에 있고, 작은 아이가 다니는 보습학원 바로 뒤편에는 미시환영 단란주점이 있는 사회. 숨기고 싶지만 인정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동방예의지국 한국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성산업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일차적 원인은 이것이 특별히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데 있다. 룬살롱과 단란주점 등 대표적 향락업소의 부가가치율은 60%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다. 값비싼 생산재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금회전도 빠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간 5조원대에 육박하는 접대비에 대해서 기업들은 꼬박꼬박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한 마디로 '돈과 여자 없이는 거래가 안 되는' 기형적인 기업 접대문화와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가리지 않고 물려드는 천민자본주의적 돈줄의 생리, 그리고 이를 발전과 경제성장의 논리로 수수방관해 온 국가의 무책임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국형 거대 공룡 향락산업인 것이다.

인간의 성을 사고파는 것이 좋은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보이지 않으니깐 덮어두고 넘어가자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남성다운 호방함'이라고 생각하던 '생계부양을 위한 남자의 길'이라고 믿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채, 집단적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남자들이 있다는 건, 여자 일반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보는 집단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의미이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여자들은 어떤가. 생계를 위해서든, 자칫 한 번의 실수 때문이든, 혹은 좀 더 쉬운 돈벌이를 위해서이든, 자신의 성을 파는 일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건, 좌절과 무기력, 자기비하와 사회(혹은 남성)에 대한 원망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집단이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들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친구나 이웃일 수 있고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지난 달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실효화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들이 강력한 단속을 받고 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 자신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진이 신문에 실리기도 한다. 국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때문에 혼란과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인간의 본원적인 인격에 대한 착취와 물상화를 거부하는 인간애가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험거운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상상력을 복원해내는 일을 중지할 수는 없다는 명제 말이다.



어린이집 행사에 마음 아픈 아이들....

서재림 · 자료회원

한국보육교사회 자료회원으로서만 있는 나에게 글을 부탁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글제주가 별로 없는 나는 심한 부담감을 안고 2달여를 보내다 어린이집 생활 중에서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해보자는 용기를 갖고 이렇게 씁니다.

04년 9월 21일 화요일 한가위를 앞두고 어린이집에서는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의 하나로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고 오게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복을 입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온 아이들에게 “예쁘게 한복을 입고 왔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많은 한복들 사이로 군데군데 한복을 못 입고 온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복을 못 입고 와서 기가 죽어 있는 아이들에게도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왔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의 말이 7살 우리 미정(24시간 보육 아동)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따라 나와 “나 집에 한복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해 줘요.” 하는 말에 미정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엄마 주무시고 계실 텐데...”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

“한복을 찾아볼게요. 부천 외삼촌 집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마치고 미정에게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미정아 어서 교실로 가서 송편 만들어야지!” 하는 말에 교실로 갔던 미정.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며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음, 엄마한테서 전화가 없었는데.... 한복이 부천에 있나보다.”

“엄마한테 다시 전화 해줘요.”

전화를 걸어 수화기를 미정에게 주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사무실 뒤편(양호실 겸용)에 있는 침대에 엎드립니다.

애써 울음을 참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보입니다.

“미정이 출지 이불 덮어줄게”

이불도 덮여보고 간지럼도 태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정아! 친구들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 함께 가야지”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달래기를 포기하고, 교실로 가서 담임선생님에게 전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사무실로 들어와 울고 있는 미정에게 “이따가 선생님이랑 함께 은행가자!” 라고 약속하고 노인정을 방문하기 위한 아이들 대열에 함께 하게 하였습니다.

“미정아! 떡은 미정이가 들고 갈래. 무거우면 얘기해!”

무거운 떡을 든 미정.

기분 전환이 되었는지 떡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들고 갑니다.

어머님께 미리 전화해서 한복을 챙겨오시게 할 것을... 후회해 봅니다.

많은 아이들이 즐겁기 위한 활동이지만 한복이 없어서 못 입고 온 아이도 있고, 부모님이 잇고 못 챙겨 보낸 아이도 있어 그 속에서 몇몇 아이는 기가 죽고 소외됩니다.

예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조카 유치원 아빠 참여수업에 돌아가신 형을 대신해 삼촌이 같이 해 주시겠어요”라는 형수의 부탁을 듣고 조카 행사에 참석했었다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아무나 참석하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아빠참여수업이라고 해서 아빠만 참석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빠 없는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조카의 아픔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시던 그분의 얼굴이 스쳐갑니다.

어린이집 행사를 계획할 때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 아동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 영유아보육예산 50% 증액

2004/9/24

내년에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아동이 올해보다 한층 늘어난다. 여성부는 내년도 영유아 보육예산을 올해 4천50억원에서 50.1%(2천27억원) 증가한 6천77억원으로 편성,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내년 보육예산은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육료가 2천671억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용 2천737억원, 시설확충 및 인프라구축비용 669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예산 확충에 따라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비율이 올해보다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만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차등보육료제(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를 확대 적용, 현재 1-3계층으로 구분돼 있는 지원대상을 1-4계층으로 늘려 9만명의 아동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보육료 지원비율도 올해 100%(1계층), 60%(2계층), 40%(3계층)에서 내년에는 각각 100%(1계층), 80%(2계층), 60%(3계층), 30%(4계층)로 높아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만 5세 아동의 경우 역시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평균소득의 70%에서 내년 8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장애아 지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의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되,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었던 지원단가 기준을 중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두 자녀이상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평균 소득 이하일 때 둘째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는 교육비 부담때문에 발생하는 출산을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여성부는 이처럼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및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비율이 올해 30%에서 내년에는 45%(4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은희 장관은 "아성의 경제참여를 늘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을 확대, 정부의 보육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34% 수준인 보육비의 국가부담률도 2008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500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30개소를 신설하고, 시설평가인증제 도입, 교사자격관리 강화, 육아지원정책개발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야간, 휴일보육 등 시간연장보육,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 채용개선 등을 위해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과 민간시설간 보육비 부담의 형평성을위해 국공립 시설의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연합뉴스]

알림란

보육계풍향

소식과 소식

전국보육노조 건설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

인권보육실현!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육의 공공성 쟁취! 보육현장 개혁!을 위한 전국보육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기금 마련 후원행사가 서울과 부산에서 있습니다.



[서울지역]

주최: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조 준비위원회

후원: 한국보육교사회 / 공공연맹

일시: 2004년 11월 19일(금) 늦은 5시부터 11시까지

장소: 파노라마(종각역 7번출구) (T.734-4720)



[부산지역]

주최: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조 준비위원회 부산지부

후원: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 / 공공연맹

일시: 2004년 11월 27일(토) 늦은 3시부터 11시까지

장소: <관> 호프(부산대역 1번출구) (T.514-0724)



우리은행을 통해 회비납부하시는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9월30일자로 우리은행에서 출금된 회비가 우리은행 전산망의 문제로 금융결제원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결제원에 의하면 우리은행에서는 출금자의 개별 계좌번호로 출금액을 다시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장 확인 후 9월30일 출금 금액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재 송금되지 않았다면 한국보육교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로 미납된 9월 회비는 10월25일 10월회비와 함께 출금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철학 자료집 발간!

『돌봄의 보육철학 - 관계중심교육 그 시작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부모들, 동료교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보육현장에는 보육철학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보육교사로서 보육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며 아이, 부모, 동료들과 만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주제를 화두로 삼고 진지하게 고민 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보육현실에서

보육교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돌봄의 보육 철학을 제안합니다.

이제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론화하기에 앞서 우리의 보육철학을 새롭게, 그리고 옹골게 세우고자 합니다.

판형 B5 (46배판) 114쪽 8000원(정회원 5000원)

주문처 주문처 02-2275-8505 이강선주(kdta@chol.com)

입금처 입금처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

한일보육교류 연수가 진행됩니다.

제12회 한일보육교류연수가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연수는 일본의 보육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로, 올해는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 의 해야해야어린이집, 포구나무어린이집, 평화를 사랑하는 방과후에서 연수를 진행합니다.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로코칸보육소의 하타이가츠미, 세이화 보육소의 정일선, 아이신보육소의 김화미, 노조미노문 보육소의 다케바야시 히로미선생님입니다.

부산지부에서는 일본의 보육제도와 영아보육을 주제로 11월4일 한일보육교류심포지움을 갖습니다.

㉠ [학술] 한국아동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주 제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일 시 2004년 11월 6일 (토) 09:30 - 17:3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일 정 아래 참고

참가비 점심식대 및 자료집 포함

- 사전등록: 15,000원 (등록 마감: 11월 3일)

조흥은행 595-04-790942 (예금주: 박성연)

• 입금 시 본인의 성함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등록: 20,000원

• 국제교육관은 이화여대 정문의 좌측에 위치한 이화 박물관 뒤에 있습니다.

• 이화여대 정문 주변복개공사 관계로 정문을 통한 차량출입이 불가하오니, 후문으로 들어오셔서 교내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일정

09:30-09:50 등 록

09:50-10:00 개회사

회장인사

10:00-10:50 I.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및 보호체계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

10:50-11:40 II. 일본의 아동학대 실태 및 보호체계

이경원 (미야자키대학교 교수)

11:40-12:00 창립 25주년 기념식

12:00-12:30 정기총회

12:30-13:40 점심식사 및 포스터 발표

사회: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

13:40-14:10 III. 아동학대와 가족관계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4:10-14:40 IV. 아동학대의 발달적 영향

박용임 (안동대학교 교수)

14:40-15:00 휴 식

15:00-15:30 V. 학대 아동의 예방과 보호

박은미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15:30-16:10 VI. 학대 아동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홍강의 (서울대학교 교수)

- 16:10-16:30 종합토론
이 숙 (전남대학교 교수)
16:30-17:30 25주년 기념 리셉션

㉠ [학술] 새세대육영회 2004년 유아교육 학술대회

본회에서는 사고력 함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아를 위한 철학교육의 가능성과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유아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올바른 사고방법을 습득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목 어린이와 철학의 만남 - 유아를 위한 철학교육

일 시 2004년 11월 20일 (토) 09:00 - 16:20

장 소 새세대육영회 5층 강당 (잠실)

참가자격 유아교육 관련자 및 일반인

참가비 30,000원 (교재 및 중식 포함)

신청방법

- 반드시 참가비를 먼저 온라인 입금하십시오.
- 입금 후 본회 홈페이지(<http://www.yukyong.or.kr>)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팩스송신(02-2203-9647, 02-413-7896) 하십시오.
- 입금계좌 및 예금주: 우리은행 423-04-110047, (사)새세대육영회
등록확인을 위해 반드시 참가자 성명으로 입금하십시오.
단, 소속기관명을 간단히 표기하십시오.
2명이상이 입금하실 경우 대표자 외 명수를 기재하십시오.
※ 불참시 참가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교재는 행사 후 우송해 드립니다.
※ 행사 당일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 상세내용

- 기조 강연 (10:00 - 10:50): 어린이와 철학의 만남
황경식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주제발표 1 (10:50 - 11:40): 유아를 위한 철학교육 - '생각·생각... 생각!'
정대련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주제발표 2 (11:50 - 12:40): 유아철학교육의 방법 -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과 철학놀이
조선희 (전주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사례발표 1 (14:00 - 14:50):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의 실제
성은혜 (전주 숲속나라 유치원 교사)

- 사례발표 2 (15:10 - 16:00): 유아의 사고력 증진을 위한 철학적 접근 - '용기' 주제를 중심으로
이현주 (동덕여자대학교 BK21 연구원)

㉠ [학술]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아이들의 신명, 살리고 펼치기'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생명력을 살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생명력은 언제 가장 힘이 날까요? 그것은 신명날 때입니다. 달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신명으로 풀 수 있는 유아교육, 아이들의 가슴에 맺힌 '화'를 풀어주는 놀이다운 놀이, 그 속에서 아이들의 신명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신명이 나서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표현해 내는 춤, 노래, 그림, 이야기에 대한 논의를 다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 시 2004년 11월 20일(토) 08:30-18:00

장 소 부산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주 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참가비 회원 - 사전: 30,000원, 당일: 35,000원

비회원 - 사전: 35,000원, 당일: 40,000원

(자료집·점심·간식 포함, 사전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온라인등록 농협 948-01-128750 입재택 (당일 행사시 입금증 지참)

등록마감 선착순 700명까지 등록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 마감은 11월 13일(토)입니다.

문의처 051-510-1586, 010-2722-1586, ecokid2002@hanmail.net

▶ 일정소개

1부

사회: 전일우(삼척대 유아교육과 교수)

08:30-09:00 등록 및 친교

[문화공연] 대금산조 - 강백천류(조철연, 한울국악원 원장)

09:00-09:30 개회식

인사: 임재택(부산대 교수, 본 학회 회장)

축사: 김인세(부산대 총장)

09:30-10:30 기조발제

생명문화운동에서 본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김지하, 시인)

10:30-11:30 주제발표 1 (춤·노래)

- 종류, 신명 그리고 아이들의 몸짓(채희완, 부산대 무용학과 교수)
11:30-12:30 어른이 만들어준 노래에서 아이 스스로 만든 노래로
(편해문, 옛 아이들 놀이노래이야기 연구소장)
12:30-13:20 점심식사
(문화공연의 영남가락 맛보기(홍순연, 극단자갈치단원))

2부

- 사회: 문무경(아주대 유아교육전공 교수)
13:20-14:20 주제발표 2 (그리기)
아이들의 그리기, 영혼과 삶의 무늬(김수현, 경상대 미술교육과 교수)
14:20-15:20 생태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그리기
(김 정, 화가, 송의여대 교수)
15:20-15:40 휴식 및 친교
15:40-16:40 주제발표 3 (이야기)
자연과 삶을 엮는 아이들의 이야기(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
16:40-17:40 생태유아교육에서 풀어내는 이야기 세상
(조희숙,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17:4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식

🕒 [학술] 미래유아교육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미래유아교육학회에서는 10월 30일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석학의 발표 모두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지며, 국내의 유능하신 교수님들의 발표 또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주제: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일정소개

- | | |
|---------------|---|
| 8:30 ~ 10:00 | 등록
오 전 사 회: 백지숙 박사(목포대학교) |
| 10:00 ~ 10:30 | 개 회 식
회장 인사말: 이영석 박사 (미래유아교육학회 회장)
공로상 및 신진 논문상 수여: 최민수 박사
(학술상 심사위원장) |
| 10:30 ~ 11:30 | 제 1 주 제 |

- 유아 수학교육의 세계적 연구동향: NCTM 기준 중심으로
발 표 자: 찰스워스 박사 (웨버대학교)
통 역 자: 전용숙 박사 (성균관대학교)
11:30 ~ 12:10 제 2 주 제
소표본 자료를 이용한 인지능력 검사의 표준화 기법 및 활용의 실제
발 표 자: 문수백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12:10 ~ 12:30 오전 질의응답
사 회 자: 백지숙 박사(목포대학교)
참 석 자: 찰스워스 박사 (웨버대학교)
문수백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12:30 ~ 14:00 점 심 식 사
오 후 사 회: 이경민 박사 (부산여자대학)
14:00 ~ 15:00 제 3 주 제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실제의 세계적 연구동향
발 표 자: 맥밀란 박사 (인디애나대학교)
통 역 자: 조부월 박사 (성균관대학교)
15:00 ~ 15:30 휴 식
15:30 ~ 16:10 제 4 주 제
우리나라의 유아 수학교육 내용과
과정: 미국 NCTM 기준과의 비교
발 표 자: 나귀옥 박사 (순천향대학교)
16:10 ~ 16:30 오후 질의응답
사 회 자: 이경민 박사 (부산여자대학)
참 석 자: 맥밀란 박사 (인디애나대학교)
나귀옥 박사 (순천향대학교)
16:30 ~ 5:00 폐 회 식

당일 등록의 혼잡이 예상되오니 참석하실 분은 미리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25,000원
- 계좌: 우체국 012260-01-001020 이영석
- 일시: 2004년 10월 30일 토요일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지하 2층 새천년홀

기타 문의는 학회(02-742-4248 박정언 간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중양소식

- ◆ 8월 24일 교육정책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 8월 28일 2004보육의 새길을 열어갈 전국보육교사한마당이 1박2일로 양평 미리내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 ◆ 8월 31일 4시 부산호텔에서 한일보육교류연수회의가 있었습니다.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와 한일보육교육연수협의회, 한국보육교사회가 2004 보육교류연수를 준비하는 회의였습니다. 우리 회의에서는 김명선공동대표와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1일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포럼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보육문제를 비롯하여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제반 논의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가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서대문구부모운영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현장연구회 등이며 이후 관심을 가지는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참가단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 9월 3일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걷기대행진' 여성부문 준비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가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4일 교육정책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 9월 8일 국회여성위원회 주최로 보육단체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8일 본회의 여성부 연구용역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연구"를 위한 기획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9월 8일 서울지부 근로기준법공부모임과 이석진노무사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 ◆ 9월 9일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걷기대행진' 여성부문 준비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가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10일 보육단체연대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10일 현장연구모임 2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윤선영교수님과 함께 14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 9월 13일 교육정책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 ◆ 9월 14일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걷기대행진' 여성부문 행사에 한국보육교사회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 9월 15일 한국생활안전협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 9월 15일 대구지부회원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김지희 조직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18일 울산지부준비위 발족식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김지희 조직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19일 여의도문화공원에서 진행된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걷기대행진' 전체행사에 중앙사무국과 서울지부 회원여러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 ◆ 9월 22일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연맹에서 주최하는 선전학교에 김지희조직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23일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위한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 9월 23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 ◆ 9월 24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된 비정규직관련법안 개악에 대한 시민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지부소식

[경기지부]

- ◆ 추석을 맞이해서 [노조건설 기금마련 지부제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사리 판매를 했습니다. 가까운 분들께 연락 안 드리고 만나기 쉬운 주변 사람들에게만 판매했는데 계획했던 개수를 다 팔아서 7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 ◆ 9월, 자연, 임미화, 고영미 생이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여했습니다.
 - ◆ 수원지회 생들이 어린이집 아이들, 부모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 ◆ 후원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참여로 지부제정기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원 봉투와 좋은 엄마 정기 구독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미술생이 맨처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부에서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렸습니다.
- ### [광주전남지부]
- ◆ 10월 1일 영아교사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그림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영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하였습니다.
 - ◆ 10월 10일 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 호주제 NO! 평등가족 걷기 한마당 ·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 ◆ 10월 15일 교사회가 주최한 프로젝트 사업인 양성평등 인형극 공연 · 종이봉지 공주 · 물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 ◆ 10월 23일 지부 임시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 [대구지부]
- ◆ 한사랑어린이집과 디딤어린이집과의 통합수업이 노마어린이집(공동육아)로 확대하여 진

행하게 되었습니다.

- ◆ 지역에서 비영리 어린이집으로 활동해오던 디딤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산지부]

- ◆ 9월 22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술세계 열려라 미술나라! 신나는 어린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부산보육교사회 연합 미술공원이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 ◆ 10월에는 후원사업을 위해 유기농 배추와 배를 판매하였습니다.
- ◆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남북어린이 평화그림전이 있습니다. 부산민주공원에서 있을 이번 그림전에서는 북한어린이 그림편지와 어린이예술가들의 그림을 비롯하여 그림책 전시, 만화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 11월 3일에는 일한보육교류회 부산보육시설 연수교류 기념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일본의 보육제도변천과 현재적 과제]와 [영아보육의 제도적 시스템과 질적 관점 및 경험]을 주제로 1시간 30분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 11월 6일에는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보육철학새우기]라는 제목으로 보육철학 특강이 있습니다. '돌봄이란?', '보육의 제도화와 아동인권' 등의 내용을 이현경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전문위원의 강의로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지부]

- ◆ 9월 17일 회원의 날이 있었지요.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꾼다'라는 비정규직 여성에 관한 비디오를 보았구요, 재정 마련과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조 건설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 회비도 내고 '우리네 아이들과 보육교사를 위한 희망만들기' 봉투도 만들어

일명 벽돌쌓기후원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 ◆ 9월 18일 운영위 평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부장님이 요리 솜씨를 발휘하고, 보육교사회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평가였지요.
- ◆ 9월 23일 근기법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지요. 뒷풀이도 하면서 고민도 나누고...
- ◆ 10월 7일 서울지부 비상(?) 모임이 있었습니다.
- ◆ 10월 14일 인형만들기 소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집에 있던 안경자생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두 주에 한번씩 만나 발도르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인형도 만들거랍니다.
- ◆ 10월 23일 서울지부 회원의 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울산지부준비위]

- ◆ 10월 23일 울산지부 준비위원회의 월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천지부]

- ◆ 10월 10일 박물관 모임에서 사갈전을 보러 갔습니다. 책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 ◆ 10월 7일 운영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 ◆ 10월 9일 회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차기 지부장 전으로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 ◆ 10월 15일-16일에 간부 훈련에 개구리, 돌리, 별선생님이 다녀왔습니다.
- ◆ 10월 25일 운영위원회의가 있습니다. 차기 일꾼과 사무실마련을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임시총회 준비를 합니다.
- ◆ 10월 30일 임시 총회가 있습니다.

♡ 사람과사람들

건강하세요!

- ◆ 용인의 이교진샘(여름수련회때 문선대중 특별히 사회자와 이야기 한 샘, 기억하시죠?)이 심한 입덧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셨습니다. 건강하세요.
- ◆ 지연 지부장님의 오랜 기간 몸살리기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환영합니다!

- ◆ 서울지부 초록새 어린이집의 이현주샘과 모지영샘이 지난 여름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 ◆ 서울지부의 박영미샘이 일본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셨습니다. 여름수련회때도 봤지만 앞으로는 얼굴 자주 보지요~

축하합니다!

- ◆ 서울지부의 구미진샘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아기 낳은 날 문자를 보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다네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세요~
- ◆ 서울지부의 김인경샘이 10월 24일 결혼합니다. 행복하세요~
- ◆ 부산지부의 김순아샘이 한여름에 낳은 둘째가 벌써 백일입니다. 10월 26일. 많이 축하 해주시고 복직도 했습니다.
- ◆ 부산지부의 고나리샘이 결혼준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혼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날짜는 11월 7일입니다.
- ◆ 부산지부의 지정희샘이 9월 중순부터 아기자람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출근한다는데 힘들지만 재미있답니다.
- ◆ 울산지부 김진희 선생님이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위해서 잠시 천정에 가 계신대요. 곧 한울타리어린이집으로 복귀할 예정이랍니다.

- ◆ 울산지부의 남궁옥 선생님이 10월 31일에 결혼합니다. 남궁님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시래요. 결혼하시면서 당분간 활동을 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설 예정이랍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많이 많이 행복해지시리라 믿어요.
- ◆ 울산지부의 손혜정 선생님이 12월 5일에 결혼합니다. 현재 울산지부 준비위의 사무장을 맡고 계신 손혜정 선생님의 남궁님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시고요. 손혜정 선생님은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실 생각이시랍니다. 즐거운 일 점점 많아지고 더욱 행복해지시길...

해외로 진출하는 샘들이 참 많네요~~

- ◆ 부산지부의 김정애, 김호연샘이 부산보육교사회 대표로 부산여성단체연합 국제교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에 갑니다.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오세요. 김 정애 샘 너무 부럽네요. 해외를 두 번이나 다니 오시다니.
- ◆ 부산지부의 박찬주, 박은영, 김경애, 김은영, 박은경샘과 서울지부의 오윤정, 김미정샘이 발도르프 교육 연수를 받으러 독일에 갔다왔습니다. 아이들은 오후 1시쯤 되면 집으로 가고 시설이나 환경은 너무 멋지고 매주맛은 끝내주고, 우리도 그렇게 될 때까지 아자아자!!

중앙 사무실을 다녀가신 분들...

- (지난호에는 그만 잊어버려... 실지 못했네요. π, π 상기시켜 준 저민샘-고마워요~)
- ◆ 6월 30일 이교진(날 덥고 일 많은 날 왔다 갑니다. 대표님, 선주샘, 정수샘 수고가 많습니

다. 조직 간사님이 점심 사준다고 왔는데 본인이 자리를 비워 못알어 먹었습니다. T.T 그레도 맛있는 점심 먹고 갑니다. *~*~

◆ 7월 1일 서정순(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보육교사회에 항상 감사하구요)

◆ 7월 6일 박정근(비가 억수로 오는 오후 근 1년 만에 찾아와도 편안한 이모님들의 느낌 좋습니다)

◆ 7월 12일 신수정(몸짓과 강습견으로 오셨어요)

◆ 7월 15일 김진숙(상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해보여요. 컴퓨터에서 지내니 전자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기도 안 좋아요. 제가 좀 민감하긴 하지만 나갔다 들어오면 숨이 턱 막히네요. 모두 바빠서 말한 마디 붙이기도 미안해요.~)

◆ 10월 15일 류지민(쓰러질 듯 보이는 책장이 불안해 보이는데도 사무실 식구들은 괜찮은가보다. 뭐,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야 또 오지요-be happy~)

회비를 내셨습니다

(04년8월14일-10월6일까지 입금분입니다.)

〈지부회비〉

서울지부 회비완납, 인천지부 회비완납, 경기지부 회비완납, 부산지부 회비완납, 대구지부 회비완납, 광주전남지부 회비완납

〈중앙회비〉

노수산 1만원 최선희 1만원 하미선 2만원
김지희 2만원 최무미 2만원 신선주 2만원
조선영 2만원 김은숙 2만원 김지혜 2만원
김실이 2만원 김예경 2만원 조남애 2만원
김해경 2만원 김명숙 2만원 손혜정 3만원
박정희 2만원 김진희 2만원 김미향 1만원
김규 6천원

〈후원회비〉

박영수 10만원 조인숙 10만원 조선경 1만원
이지수 1만원 주로미 1만원 김영옥 1만원
이미화 1만원 김은주 1만원 신주영 1만원
김진명 1만원 이미정 1만원 신아령 1만원
손경관 1만원 김숙희 1만원 지은희 20만원
서은희 2만원 오윤정 2만원 최현희 2만원
원명순 2만원 장성일 2만원 임태형 2만원
백선희 2만원 오영숙 2만원 김정윤 2만원
김경인 2만원 한만우 2만원 김동현 2만원
하운하 2만원 신현미 2만원 박선하 2만원
김명미 2만원 장해자 2만원 송순우 2만원
전정옥 2만원 최영신 2만원 양은희 2만원
한상원 2만원 김수애 2만원 홍현희 2만원
유희정 2만원 박은아 3만원 김종원 3만원
새쌍둥이어린이집 45만원 권성춘 4만원
이현경 4만원 남명자 4만원 이희경 4만원
김민정 4만원 이옥 4만원 안명희 4만원
최순옥 5만원 김세희 5천원 오경숙 6만원
동그라미놀이방 6만원 오선영 6만원
권혜진 6만원 김현빈 4만원 이 순 10만원
이경녀 5만원

〈기타〉

추석상여금 지정후원금 황미혜 12만원
이은애 40만원
보육노조설립기금후원금 서현경 30만원
좋은 엄마 정기구독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준희 박광준 김인순 박은아 김지현
최현정 이순영 박진영 최영주 조은경
정승희 박차옥경 이지혜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시는 후원회원님들과 후원모금 50일 집중기간을 통해 새로 후원회원회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늘 격려의 마음으로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육노조설립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서현경

평예회원님이 50만원을 약정하셨습니다.
애정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육의 질 높인다면서 교사지원 축소?

여성부 예산안에 보육계 반발

2004/10/6

2005년 보육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성부와 보육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내년도 여성부의 영유아보육예산안과 개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불씨가 됐다. 보육계는 여성부의 방침에 대해 "보육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하면서도 국공립·법인 교사인건비 지원을 줄이고 보육료 증액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각종 문제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부는 지난달 내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을 올해 4050억원에서 50.1% 늘어난 6077억원으로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안을 보면 소득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나 시설보육 예상아동 92만명 가운데 41만명의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줄어든다. 여성부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교사 인건비 지원율은 영아는 90%에서 80%로, 유아는 45%에서 30% 각각 줄어들게 된다.

보육시설의 평가와 심의 또한 강화된다. 여성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보육시설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 여성부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이 경쟁체제에 도입함에 따라 교사의 질이 확보되고 시설의 운영이 좀더 투명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육계는 국공립·법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인건비 지원 축소 반대시위를 벌인 전국법인보육시설연합회의 고동식 회장은 "여성부가 매년 12%씩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원생이 모자라는 중소도시의 보육시설은 아이들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황영자 회장은 "전체 보육예산 중엔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지금도 전체 정원 86%밖에 아이들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금으로 버텨왔던 지역 보육시설은 매달 평균 3백여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시설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도 여성부의 지원체계 변경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대표는 "시설간 경쟁으로 보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처사"라며 "시설간 경쟁이 극심화되면 교사가 아이들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감이 생기고 정상 근무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김태석 보육정책국장은 "경쟁체제에 놓이게 될 국공립·법인시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사인건비 지원율의 축소는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늘이고 시설간 보육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이윤진 기자 frog@hani.co.kr]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교사 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정회원이 되면.....

- ◆ 매월 1만원+매(연회비 12만원과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이 되면.....

- ◆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회원이 되면.....

- ◆ 연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면.....

-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
엄마들 세상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2-2271-1548